

# 아시아·太平洋地域에 관한 人口 關聯 研究

○ 人口分散과 發展 - 政策決定에 대한 意味 -

Population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Policy Decision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28, 1988)

○ 嬰幼兒 死亡力 - 出產行態에 대한 意味 -

Infant and Child Mortality: The Implications for Fertility Behaviour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29, 1988)

○ 人口와 發展計劃의 統合을 위한 研究의 必要性

Research Requirement for Integrating Population into Development Planning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30, 1988)

1989

ESCAP POPULATION PUBLICATIONS TRANSLATION PROJECT  
Co-ordinated by the  
Clearing-house and Information Section,  
POPULATION DIVISION ESCAP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人口分散과 發展

## — 政策決定에 대한 意味 —

### 目 次

都市化의 파라독스.....	7
都市人口 成長과 都市化.....	11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巨大都市.....	13
國內移動의 社會—人口學的 側面.....	16
人口分散政策 .....	21

---

이 글은 ESCAP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28인 “Population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Policy Decisions”을 번역한 것이다.



## 要約 및 政策的 意味

세계의 20대 大都市 중에서 半이 아시아-태평양 地域에 位置하는데 12年 以內에 人口 1000만명이 넘는 도시가 14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都市人口의 빠른 增大에도 불구하고 都市化 水準은 점진적으로 增加되어 왔다.

政策樹立者나 計劃樹立者에게 있어 一般的 都市化는 別個 都市地域의 성장및 人口規模보다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 地域에 세계의 巨大都市 中 多數가 위치하게 될것이란 점이 別個 都市의 成長 側面이다. 列를 들어서 토오쿄/요꼬하마는 2000年頃 2400 萬명이 넘을 것으로 推計된다.

이 地域 大都市의 확장은 人口移動으로 한층 도가 심해지는데, 이런 식의 都市成長은 政策樹立者나 計劃樹立者에게 관심이 되는 社會·經濟的 結果를 야기시킨다. 國內移動은 都市 勞動力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며, 몇몇 나라에서는 특히 이 勞動力이 國家 經濟의 빠른 成長과 부흥에 기여케 된다.

人口分散및 開發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에 관한 논의가 1988年 9月 제45次 ESCAP 委員會에서 발표되었다. 이 報告는 그 일부가 Population Research Leads 로 發刊되었는데, 아시아-태평양 地域 國家들이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과 大都市 成長을 完화시키기 위해 어떤 범위의 政策을 어떻게 채택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農村開發戰

略, 農村定着事業, 地域成長 促進, 産業體 再配置, 위성도시의 건설 등이 포함된다.

가장 공통되는 政策은 國家 第一都市 또는 首都圈으로의 轉入을 늦추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政策은 대체로 成功하지 못했다. 住居地 移動에 대한 직접 통제는 사람들이 이를 교묘하게 피해 가므로 대개가 실패한다.

그러나 비록 이런 政策이 성공적으로 實施되었다고 해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明確치 않다. 많은 나라에서 首都는 經濟成長의 엔진이므로 그 成長을 늦추는 일은 國家經濟에 害가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투자가 비용이 덜든다고 하여도 效率면에서 떨어지고, 首都의 成長은 결국 저절로 속도를 늦추게 된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分明치 않다. 그러므로 각 國家 사정에 따라 政策을 樹立하는 일이 중요하다.

보다 成功의일것 같은 政策은 정치적으로 施行하기가 어렵다 首都圈 중심의 간접적 地域分散 政策 대신에 보다 많은 資源을 기타 都市 설비에 투자하며 産業體를 再配置하는 것 등이다.

中心都市 또는 中間都市의 成長 促進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中心都市 戰略은 農村流通및 農業관련 文化 서비스와 같은 고유의 經濟活動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中心都市는 政府機關이나 教育機關과 같은 공공시설의 확장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이는 결국 여러가지 방법으로 産業體를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며 결정이나

財源調達에 있어 어느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여러가지 方法으로 農村開發 戰略이 시도되어 왔다 물론 이 전략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지만 農村開發이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首都圈 人口를 감소시키는 政策, 中心都市 強化政策 또는 農村開發 政策을 獨立的으로 추구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人口分散 政策은 국가 安定 政策 次元에서 統合적으로 施行하는 것이 중요하다. 農村開發은 農村地域을 뒷받침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小都市 및 읍지역의 發展을 요구한다. 따라서 人口의 首都圈 流入을 제한하는데는 中心都市의 開發이 首都圈에서 어떤 方法을 강구하는 것보다 더 効果的이다. 이 人口分散의 統合的 接近은 地域間 또는 地域內 交通,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강조가 필요하다.

분명한 점은 都市化가 일전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都市化 速度는 經濟成長과 밀접하다는 점이다. 首都圈으로의 人口移動을 中心都市로의 이동으로 대체시켜서 그 速度를 줄이는 일은 中心都市의 빠른 成長을 야기할 뿐 國家의 都市問題를 완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한 몇몇 計劃樹立者들을 分散이 都市問題의 解決이 아니고 首都圈의 效率性이 國家經濟成長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몇몇 사람들은 여러 아시아 지역 國家의 都市化가 都市와 農村 經濟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都市 및 國家

經濟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首都圈의 成長을 늦추려는 미숙한 시도는 經濟的으로 非效率的일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 政策은 首都圈의 成長을 멈추려는 시도보다는 보다 效率的으로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都市化의 파라독스

世界 20個大都市 중에서 10個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섯은 人口가 千萬名 以上이다. 뿐만아니라 12年 以內로 14個 都市人口 千萬名 以上으로 커질 것이다. 아시아의 도시 人口數는 1960年 3억 4千 百萬名에서 1985년에는 그 두배 이상인 7억 249 萬名으로 增加하였다.

이 지역 都市人口가 과거 25年間 그렇게 빠른 속도로 增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人口 중에서 都市人口가 차지하는 比率 즉 都市化水準은 점진적인 증가 속도를 나타내서 表1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1960年の 21퍼센트가 1985년에는 27퍼센트 정도로 증가되었다. 빠른 속도의 都市人口數의 增加와 비교적 느린 都市化 比率의 모순은 都市化 比率이 相對的으로 낮아서 都市人口의 빠른 增加率이 都市化 比率의 增加로는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 地域의 대부분의 나라가 農村 人口 成長率이 最近까지만해도 높았기 때문에 都市의 成長率이 매우 높다해도 전체로 볼때는 완만한 變化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都市및 農村 人口가 이같은 例이다. 20年間 都市人口가 1030만명에서 2160만명으로 1130만명이 늘어 2배로 증가되었으나 같은 기간에 農村人口는 2220만명에서 3290만명으로 比率은 48%이나 실제 人口數로는 1090만명으로 都市人口增加數와 같다.

表1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國家인 中國과 印度의 都市化 比率이 낮기 때문에 전체 아시아-태평양 地域의 都市化 比率도 낮다. 中國의 經濟및 社會 政策은 거의 二十年間 都市化 比率의 變動을 없게 하였으며, 印度의 경우는 1970年 이후부터 다소 빠르게 變化하기는 하였으나 1985년에 단지 15.5퍼센트에 머무는 정도이다. 印度를 제외시키더라도 남아시아 地域國家의 都市化 比率은 1970年에서 1985年 사이에 약간의 變動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Table 1: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living in urban areas, regions and selected countries of Asia, selected years 1950 to 2000**

Region and country	1950	1960	1970	1980	1985	1990	2000
Asia	16.2	21.1	23.2	25.6	26.9	28.7	33.6
East Asia	16.8	25.0	26.9	28.1	28.6	29.5	32.9
China	11.0	19.0	20.1	20.4	20.6	21.4	25.1
Japan	50.3	62.5	71.2	76.2	76.5	76.9	77.8
Republic of Korea	21.4	27.7	40.7	56.9	65.3	71.1	79.6
South-east Asia	14.8	17.6	20.2	24.0	26.3	29.0	35.5
Burma	16.1	19.3	22.8	23.9	23.9	24.6	28.2
Indonesia	12.4	14.6	17.1	22.2	25.3	28.8	36.5
Malaysia	20.4	25.2	27.0	34.2	38.2	42.3	50.4
Philippines	27.1	30.3	33.0	37.4	39.6	42.4	49.0
Thailand	10.5	12.5	13.3	17.3	19.8	22.6	25.9
Viet Nam	11.7	14.7	18.3	19.3	20.3	21.9	27.1
South Asia	15.9	17.3	19.5	23.2	25.2	27.6	33.6
Afghanistan	5.8	8.0	11.0	15.6	18.5	21.7	29.1
Bangladesh	4.4	5.1	7.6	10.4	11.9	13.6	18.3
India	17.3	18.0	19.8	23.4	25.5	28.0	34.2
Islamic Republic of Iran	27.7	33.6	41.0	49.1	51.9	54.9	61.1
Nepal	2.3	3.1	3.9	6.1	7.7	9.6	14.3
Pakistan	17.5	22.1	24.9	28.1	29.8	32.0	37.8
Sri Lanka	14.4	17.9	21.9	21.6	21.1	21.4	24.2

*Source:* *The Prospects of World Urbanization: Revised as of 1984-1985*, Population Studies No. 101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7.XIII.3), table A-1.

*Note:* The figures for Asia and the regions refer to the entire area, including countries of under 10 million population, which are not shown.

과는 좀 다르다. 네팔 (3.8퍼센트) 방글라데시 (4.9퍼센트) 파키스탄 (4.9퍼센트) 의 都市化 成長率이 매우 완만하지만 네팔과 방글라데시 경우는 人口規模가 크기 때문에 1퍼센트만 增加해도 숫자로는 백만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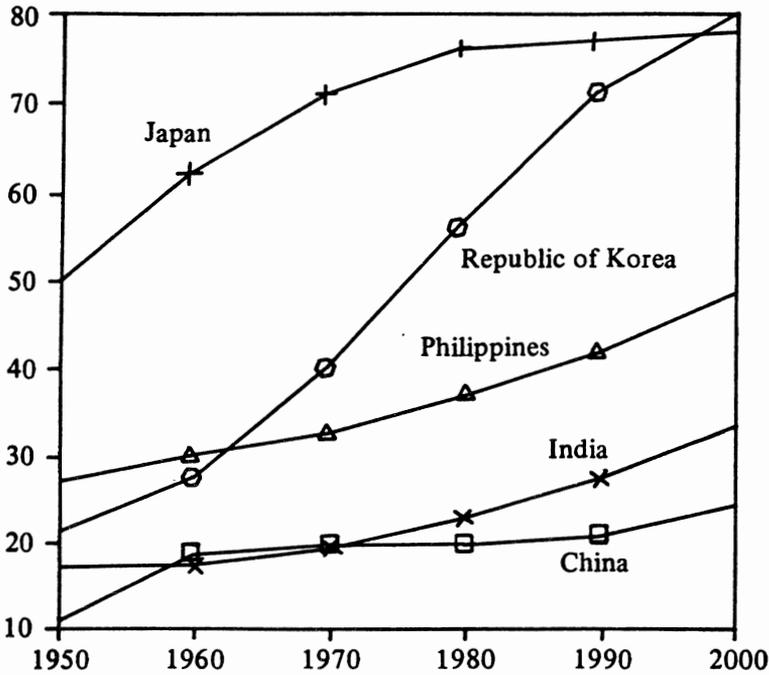
스리랑카는 1970年 이후 都市化 比率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웃 콜롬보로의 이주를 실제로는 都市임에도 불구하고 農村으로 처리함으로써 나타난 피상적인 결과이다. 버마와 베트남의 都市化 比率은 1970年에서 1985年間에 약간 증가하였다.

이 두 國家를 제외하고 과거 15年間 東南아시아 國家의 都市化 比率의 증가는 南아시아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국의 都市化 增加 比率은 6.5퍼센트 포인트로 필리핀과 같은 水準이지만 당초 水準보다는 1/3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1970年에서 1985年간 인도네시아의 도시화 증가율은 8.2퍼센트 포인트이고 말레이시아가 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1.2퍼센트 포인트이다. 말레이시아 경우로 1990年경에 都市化 比率이 필리핀을 앞지를 전망이다.

日本은 1970年에도 71.2퍼센트로 높은 都市比率을 보였으나 1980년까지 계속 증가 하였으며 그 이후에 다소 떨어졌다.(圖1) 아시아에서 都市化 比率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는 韓國으로 24.6퍼센트 포인트가 증가되었다. 1970年에서 1985년까지 韓國의 都市人口는 1300만에서 2700만명으로 두배가 되었다.

例外는 있겠지만 아시아 국가간에 地域的 差異에 따른 樣相이 뚜렷

**Figure 1: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living in urban areas, China, India, Japan, the Philippines and the Republic of Korea, 1950-2000**



Source: *The Prospects of World Urbanization: Revised as of 1984-85*, Population Studies No. 101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7.XIII.3), table A-1.

하게 나타난다. 과거 15년간의 都市化 증가율은 이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의 평균치를 웃돌긴 하지만 대체로 남아시아가 가장 낮다. 남동아시아의 경우가 남아시아 보다는 증가율이 높으나 한국보다는 훨씬 낮다. 즉 最近 都市化는 經濟 成長率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이란의 경우 남아시아에서 석유 수출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동남 아시아는 1970年代에 신흥 經濟國家로 부상하였다. 여기서 버마와 베트남

남은 예외인데 이나라들의 都市化 增加率은 매우 낮았다. 韓國은 都市化가 매우 빠른 社會 經濟的 變化와 맥을 같이 한다. 1970年에서 1985年 동안에 GNP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農業勞動人口比率이 51퍼센트에서 34퍼센트에서 감소된 반면에 2次 産業部門은 20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증가하였다.<sup>1)</sup>

## 都市人口 成長과 都市化

### 都市-農村의 成長 差異

都市化 速度를 측정하는 좋은 方法은 都市와 農村의 成長의 差異를 보거나 또는 都市와 農村 人口의 年間成長率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이는 都市化 속도 속에서 農村人口 成長의 중요성을 알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UN 統計에 의하면 表2에 제시된바와 같이 1970年에서 2000년 사이에 아시아 전체의 都市人口 成長率은 거의 變化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農村人口 成長率은 같은 기간만에 급속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1970-1980年の 1.7퍼센트에서 1980-1990年에 1.2퍼센트, 1990-2000년에는 0.7퍼센트로 集計되었다. 결과적으로 都市化 速度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都市-農村의 成長의 差異가 각각 1.3, 1.5, 2.3퍼센트로 나타나게 된다.

필리핀과 韓國의 推計를 比率하면 都市人口成長率과 都市化 速度의 差異를 알 수 있다. 1990-2000년간에 필리핀의 都市人口는 年 3.

1) 大韓民國, 調査統計局, 韓國統計年監, 서울, 매년

4퍼센트로 증가되었고 韓國은 2.4퍼센트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에 필리핀 農村人口는 年 0.7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임으로 결과적으로 都市-農村의 成長의 差異가 2.7퍼센트가 된다. 反面에 韓國은 農村人口가 年 2.2퍼센트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므로 成長率 차이는 4.

**Table 2: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urban and rural population, and urban-rural growth difference,\* regions and selected countries of Asia, 1970-1980, 1980-1990 and 1990-2000**

Regional and country	Average annual growth rate (percentage)						Urban-rural growth difference		
	Urban			Rural			1970-1980	1980-1990	1990-2000
	1970-1980	1980-1990	1990-2000	1970-1980	1980-1990	1990-2000			
Asia	3.03	2.75	3.02	1.71	1.22	0.73	1.32	1.53	2.29
East Asia	2.19	1.67	2.16	1.60	0.99	0.59	0.59	0.68	1.57
China	1.97	1.70	2.67	1.78	1.08	0.64	0.19	0.62	2.03
Japan	1.80	0.67	0.58	-0.77	0.29	0.07	2.57	0.38	0.51
Republic of Korea	5.12	3.86	2.41	-1.41	-2.40	-2.19	6.53	6.26	4.60
South-east Asia	4.00	3.86	3.71	1.77	1.29	0.72	2.23	2.57	2.99
Burma	2.64	2.20	3.08	2.04	1.83	1.23	0.60	0.37	1.85
Indonesia	4.90	4.44	3.88	1.63	0.96	0.38	3.27	3.48	3.50
Malaysia	4.75	4.40	3.44	1.32	0.98	0.20	3.43	3.42	3.24
Philippines	3.77	3.58	3.40	1.85	1.50	0.72	1.92	2.08	2.68
Thailand	5.10	4.49	4.24	1.99	1.14	0.70	3.11	3.35	3.54
Viet Nam	2.89	3.27	4.02	2.25	1.67	1.19	0.64	1.60	2.83
South Asia	4.02	3.78	3.70	1.82	1.46	0.89	2.20	2.32	2.81
Afghanistan	5.14	5.98	5.05	1.12	1.95	1.15	4.02	4.03	3.90
Bangladesh	5.94	5.36	5.27	2.49	2.31	1.80	3.45	3.05	3.47
India	3.87	3.61	3.54	1.69	1.21	0.63	2.18	2.40	2.91
Islamic Republic of Iran	4.87	3.95	3.47	1.61	1.61	0.92	3.26	2.34	2.55
Nepal	6.90	6.81	6.21	2.21	1.93	1.68	4.69	4.88	4.53
Pakistan	3.91	3.95	3.96	2.28	2.08	1.38	1.63	1.87	2.58
Sri Lanka	1.55	1.54	2.42	1.73	1.66	0.80	-0.18	-0.12	1.62

Source: *The Prospects of World Urbanization: Revised as of 1984-1985*, Population Studies No. 101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7.XIII.3), tables A-3 and A-5.

Notes: The figures for Asia and the regions refer to the entire area, including countries of under 10 million population, which are not shown.

\* = The urban-rural growth differenc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urban and rural growth rates.

6퍼센트가 된다. 비록 都市 成長率 推計가 韓國보다 필리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이같은 農村人口成長率 때문에 필리핀의 都市化 速度가 훨씬 느린 것같이 보인다.

都市-農村間의 成長 差異로 볼때 필리핀의 都市化 速度는 적절하여 인도나 이란보다 약간 높은뿐이다. 그러나 낮은 水準에도 불구하고 벵글라데시의 都市化는 빠르고, 네 팔은 都市-農村間 成長의 差異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높다.

東南아시아 地域 국가들이 都市化 速度가 가장 빠르는데 都市-農村間 成長의 차이가 2.6퍼센트이다. 인도네시아가 차이 成長率 3.5퍼센트로 이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모두 3.4 수준이다. 韓國은 비록 1970-1980年의 年 5.1퍼센트이던 都市比率의 증가가 1980-1990年에는 3.9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지긴 하였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른 都市化를 보이는 國家이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에 農村人口의 감소가 상당히 빨라졌으므로 都市-農村의 成長 差異는 단지 6.5퍼센트에서 6.3퍼센트로 약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巨大都市

計劃樹立者 및 政策樹立者는 人口規模나 특정 都市의 成長 만큼 전체적 都市化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제 이점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의 많은 巨大 都市가 아시아에 있다. 예를 들어서 1980年代에

세계에서 가장 큰 都市群인 도오쿄/요코하마 있으며, 20세기末에는 이곳 人口가 20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나 멕시코市나 브라질의 상파울로는 그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sup>2)</sup>

아시아-태평양 地域 대부분의 도시는 계속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이다. 人口 500만이 넘는 都市는 1980年 13개에서 1990년에는 18개, 그리고 2000년에는 21개로 증가될 전망이다.

人口 1000만이 넘는 都市地域의 경우 상태는 더욱 더 심각하다.

Table 3: Population and average annual growth rates of the 15 largest urban agglomerations in Asia, 1970 to 2000

Rank in 1985	Agglomeration	Population in millions				Growth rate (percentage)		
		1970	1980	1990	2000	1970-1980	1980-1990	1990-2000
1	Tokyo/Yokohama	14.91	17.67	19.28	20.22	1.70	0.87	0.48
2	Shanghai	11.41	11.75	12.35	14.30	0.29	0.50	1.47
3	Calcutta	7.12	9.54	12.54	16.53	2.93	2.73	2.76
4	Seoul	5.42	8.47	11.66	13.77	4.46	3.20	1.66
5	Greater Bombay	5.98	8.53	11.79	16.00	3.55	3.24	3.05
6	Osaka/Kobe	7.61	8.71	9.82	10.49	1.35	1.20	0.66
7	Beijing	8.29	9.06	9.59	11.17	0.89	0.57	1.53
8	Jakarta	4.48	6.65	9.48	13.25	3.95	3.55	3.35
9	Tianjin	6.87	7.65	8.25	9.70	1.08	0.76	1.62
10	Tehran	3.29	5.76	9.38	13.58	5.60	4.88	3.70
11	Delhi	3.64	5.87	9.13	13.24	4.78	4.42	3.72
12	Manila/Quezon City	3.60	5.96	8.26	11.07	5.04	3.26	2.93
13	Karachi	3.14	5.17	8.16	12.00	4.99	4.56	3.86
14	Bangkok	3.27	4.96	7.38	10.71	4.17	3.97	3.72
15	Madras	3.12	4.44	6.03	8.15	3.53	3.06	3.01

Source: *The Prospects of World Urbanization: Revised as of 1984-1985*, Population Studies No. 101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7.XIII.3), table A-9.

2) The prospects of world urbanization: Revised as of 1984-1985 Population Studies No. 101 (U.N publication, Sales No. E87.X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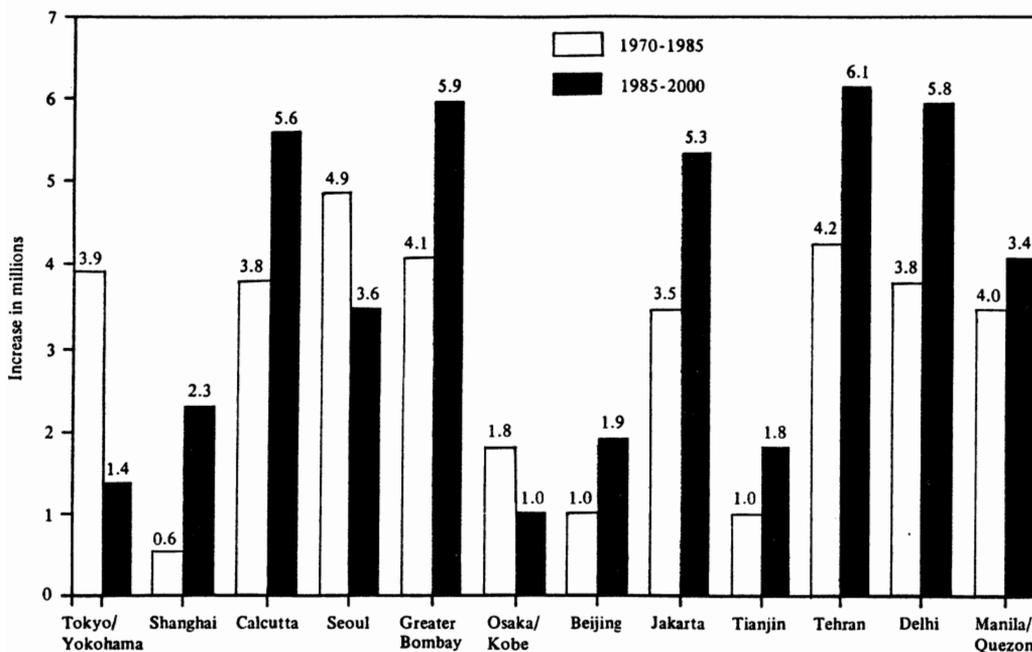
1980년에는 세계에서 2개 정도가 人口 1000만 수준이나 1990년에 5개가 되고 2000년경에는 14개에 달하게 된다.

1970-1985年間과 1985-2000年間の 都市地域人口의 절대수 증가를 보면 3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번째로는 1985-2000年間の 人口增加가 1970-1985年間の 增加보다 적은 유형으로서 토오쿄/요코하마, 서울 그리고 오사카/코베의 3개 都市地域이다.

두번째 集團은 中國의 상하이, 베이징, 탄징으로서 1970-1985年 동안

**Figure 2: Absolute increase in population of the 12 largest urban agglomerations in Asia, 1970-1985 and 1985-2000**



Source: *The Prospects of World Urbanization: Revised as of 1984-85*, Population Studies No. 101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7.XIII.3), table A-9.

에는 100만명 또는 그 이하로 증가되었으나 1985-2000년에 이보다는 더 많이 증가된다고 기대된다.

나머지 6개 都市는 圖2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1970-1985년에 많은 증가를 보였고 1985-2000년에도 더 많은 증가가 기대되는 模型이다.

### 國內移動의 社會-人口學的 側面

都市化가 빠르게 나타나는 기간에는 都市 成長의 半이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 때문인데, 여기에는 젊은 年齡層의 男·女가 주를 이루므로 社會적으로 主要한 結果를 낳는다.

비록 移動人口에는 女子보다는 男子가 더 많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例外는 있다. 南아시아에서는 農村으로의 移住者가 대부분 男子 마을로 결혼해서 이주해가는 女子들이다. 인도에서도 1971년에서 1981년 사이에 農村으로 옮긴 移動의 71퍼센트가 女子이다. 都市로의 移動에는 女子가 차지하는 比率이 낮은 편이나 1960年代에 비해서 1970年代에는 상당히 증가되어서 農촌에서 都市로의 移動은 1960年代에 46퍼센트이던 것이 1970年代에는 50퍼센트로 나타났으며 道에서 道로 옮긴 경우는 각각 37퍼센트가 女子였다. 都市에서 都市로의 移動의 경우 女子가 차지하는 比率은 더 높아서 1960年代에 48퍼센트였고 1970年代에는 53퍼센트였다. 대부분의 女性 移住者는 그들의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데 이는

移動過程中서 社會的 安定性을 높여 주지만 한편으로는 都市의 고용 서비스 및 하부시설구조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필리핀에서는 1975-1985年間 道間 移動의 53퍼센트가 女子이며 都市 地域의 道間 移動은 55퍼센트가 女子이다. 다른 道에서 都市 수도권의 移動은 1975-1980年間 58퍼센트가 女子이다.<sup>4)</sup>

韓國은 1960年 中半 以後 빠른 社會 經濟的 發展으로 國內 移動도 전례없이 높았으며 적어도 1980년까지 계속 증가해왔다. 道內와 道間 移動은 같은 수준이었고 두 경우 모두 男子보다 女子의 比率이 높았다. 1975年에서 1980年 사이에 女子의 22.6퍼센트, 男子의 23.8퍼센트가 移動한 經驗은 갖는다.<sup>5)</sup>

人口 5萬이 넘는 읍이나 市를 都市로 간주할 때 1980年 現在 韓國 人口의 60퍼센트가 都市에 살고 있다. 1975年에서 1980年 사이의 移動 중 51퍼센트는 都市에서 都市로의 移動이며 33퍼센트가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인데 각각 모두 男子보다 女子 比率이 높고, 특히 젊은 年齡層의 경우가 높다. 都市에서 都市로의 移動은 29세 미만과 45세 이상에서 女性比率이 男子比率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나 女性 比率이 가장 높은 것은 결혼 및 家庭形成 기간이 되는 25~29歲로서 40.3퍼센트에 이른다.<sup>6)</sup>

農村人口 중 都市로 이주하는 比率은 都市에서 都市로의 이동을보다

4) Philippines,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s Office, 1980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Vol. 2, National Summary (Manila, May 1983) table 10.

5) 大韓民國, 調査統計局, 같은책.

6) 앞의책

났다. 그러나 15~29歳の 男子와 15~24세의 女子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農村에서 都市로의 이동은 都市間 이동보다 젊은 연령층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教育 및 職業에 따른 잦은 이동 탓으로 사료된다. 1975-1980年 동안에 15~19歲 農村 女子의 35퍼센트가 都市로 옮겨졌으며 20~24歲는 46.9퍼센트가 都市로 이주하였다.<sup>7)</sup>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은 대부분이 雇傭 때문이다. 예를 들어 韓國의 경우 1975-1980年 사이에 農村에서 都市로 移動한 14세 이상 중 男子의 66퍼센트가 1980년에 취업되었다. 女子의 경우는 40퍼센트 정도인데 전체 都市 14세 이상 女子의 雇傭率 26퍼센트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은 특히 女子의 경우 초기 勞動力의 移動과정을 뜻한다. 이들 移動者 중 移動前 雇傭을 보면, 83퍼센트가 農業에 종사하던 女子들이다. 都市에 정착한 뒤에는 雇傭된 女子의 62퍼센트가 제조 공장에서 일한다.

무역업 및 서비스 산업도 都市로 들어온 農村 男·女가 처음으로 취업하게 되는 雇傭 분야이다.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의 雇傭은 보다 만족한 직업을 찾을 때까지 임시직이다. 韓國은 1975年에서 1980年까지 農村에서 都市로 옮긴 男子의 54,000명이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 일자리를 찾은 반면에 같은 기간에 기존 都市에서 살던 男子는 29,000명이 서비스 분야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고, 女子의 경우는 36,000명이 都市로 移住해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한 반면에 기존

---

7) 앞의책

거주자는 16,000명의 여성이 서비스 분야를 떠났다.

製造業은 男子에게는 비교적 보다 안정된 雇傭을 가능케 하지만 女子에게는 임시적이다.

女子는 1975年에서 1980年 사이에 237,000명이 都市로 옮겨와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나 같은 기간에 69,000명의 기존 도시 거주 제조업 종사자는 이 분야를 떠난 것으로 집계되었다.<sup>8)</sup>

태국에서도 전직 比率은 낮으나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태국 전체로는 1975-1980年동안에 女子(7.1퍼센트)보다는 男子(8.0퍼센트)가 移動率이 높으나 방콕으로의 移住는 5年間 女子가 14.2퍼센트로 男子 13.4퍼센트보다 높다.<sup>9)</sup> 태국도 韓國과 마찬가지로 女子는 男子보다 젊은 年齡이 移住한다. 15~19歲 移住者는 男子보다 女子가 移動率이 높으며, 男子는 25~29歲, 女子는 20~24歲가 移動率이 제일 높다. 또한 기타지역에서 市지역으로의 移動은 女子가 男子보다 약간 높으며 5세에서 24세까지는 女子의 移動率이 男子 移動率보다 같거나 약간 높다. 市地域에서 다른 市地域으로는 女子 8.3퍼센트 男子 8.2퍼센트의 移動率을 보인다.<sup>10)</sup>

일자리를 찾는 젊은 사람, 특히 남자보다는 女子인 경우 방콕은 매우 매력적인 곳이다. 방콕으로 이주한 女子의 年齡分布는 전체 女子

8) 앞의책

9) Chintana Pejaranonda, Sidney Goldstein and Alice Goldstein, Migration, 198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ubject Report No. 2 (Bangkok,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0) 앞의책

移動者 年齡分布보다 상당히 젊다. 특히 北東 地域에서 많은 젊은 女子들이 방콕으로 이주해 간다. 방콕으로의 이주에 대한 1980年 調査 結果 2年間의 총 97,393 移住者 중 60,185名이 女子이며 그중에 49퍼센트인 29,406名이 10~19세 연령층이다. 10~19세 年齡層의 女子는 단지 18퍼센트만이 다른지역이고 63퍼센트인 18,661명이 먼 北東地域 출신이며 북동 지역에서 移住한 사람 중 91퍼센트인 16,897명이 시골 출신이다. 이와같은 방콕으로의 移住는 순환적인 성격을 띠어 이들 중 적어도 1년후까지 이 도시에 남는 비율은 채반이 안된다.<sup>11)</sup>

국내 移動은 都市 勞動者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韓國은 1975~1980年間 都市地域 雇傭增大의 62퍼센트가 純移動에 따른 것이며, 女子의 경우는 순이동이 女性 雇傭數 增大의 92퍼센트를 차지한다.<sup>12)</sup>

韓國은 分明 이같은 移動이 빠른 경제성장과 부흥을 가능케 했으며 이같은 移動은 완화시키기 위한 政策은 費用이 많이 들뿐아니라 逆效果를 낳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런 移動의 방지 수단은 효과가 없으며 費用效率性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韓國 農村 地域에서 製造業과 建設 분야의 雇傭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都市에서의 雇傭보다는 純移動이 훨씬 낮아야 가능하다.

빠른 都市化 상황에서 적절한 教育政策을 樹立한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農村의 젊은이가 직업을 찾아서 都市로 大量 流入하

11) Calculated from Thail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urvey of Migration into the Bangkok Metropolis and Vicinity 1984 (Bangkok).

12) 大韓民國, 調査統計局, 같은책

는 상황이라면 農村地域에다 農村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教育機會를 강조하는 것과 아니면 都市에서 都市移住者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教育의 강조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 정책이겠는가?

雇傭으로 인한 移動은 經濟的 및 個人的 費用이 높는데 그럼에도 특별히 效果的이지는 않다. 韓國에서는 女子들이 農村에서 주로 都市의 製造業으로 옮겨오고 이어서 다시 都市에서 보다 만족스런 職業으로 옮긴다. 태국의 경우 방콕으로의 移動은 계절적이며 또한 임시적이다. 雇傭安定을 增大시키기 위한 政策 開發이 더 費用-效果的인가 아니면 이것이 現在 雇傭 過程에서의 適應性和 탄력성을 잃게 함으로 非效率的이 되겠는가?

## 人口分散政策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과 大都市의 成長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政策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農村 開發戰略, 農村 再定着事業, 地域 成長, 産業體 위치의 재조정, 위성도시 건설 등이 포함된다.

大都市나 수도권으로의 이동 속도를 늦추기 위해 어느나라나 이들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모두 성공을 거둔다고는 할 수 없다. 주거지 이동에 대한 직접 통제는 사람들이 이를 피해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실패한다.

또한 늘 실패하는 都市圈으로 인구이동 감소 정책의 하나가 中小都市를 만드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理由로 설명되는 것은 이 정책이 農村에서 都市로 옮기려는 사람만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대응으로서만 간주되었지 수도권으로 옮긴 당초 그 지역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보다 성공적으로 여겨지는 정책은 정치적으로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 이런정책으로는 수도권 위주의 인구분산 정책 대신에 다른 도시의 시설구조에 더 많은 재원을 분배하며 산업체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이런 정책은 성공적으로 施行된다 하여도 그렇게 해야하는가는 분명치 않다. 많은 나라에서 수도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이 수도의 成長을 늦추는 일은 國家經濟에 해가 된다. 다른 지역에 투자가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도 이것이 더 效果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수도의 成長은 결과적으로 成長速度가 저절로 늦추어진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일찍부터 그 과정을 加速化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각 나라마다 특성에 맞춰 政策은 樹立하는 것이 중요하다.

特定 地域이나 中小都市를 增進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한 人口分散 傾向을 가속화시킨다. 中小都市는 크기로 中間 정도인데, 中小都市 戰略과 特定地域은 몇가지 점에서 區分된다. 中小都市 戰略은 그 都市 고유의 經濟行爲를 강조하고 都市와 農村의 연계를 강화하며 여러

중심지를 포함시키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政策의 成功을 위해서는 많은 指針이 있는데 效果的 수요가 있는데서만 대규모 製造가 증진될 수 있다. 만약에 中小都市의 産業體別 인센티브가 주어 진다면 이것이 수도권에서는 통용되서 안된다. 사실 수도권에서 거두어 들인 조세 財源은 다른 지역의 産業을 發展시키는데 쓸수도 있다.

中小都市및 그 부근 地域의 시설설비도 改善해야 한다. 經濟開發政策은 이들 都市의 經濟構造및 役割과 관련시켜야 하는데 이는 주로 農業流通과 農業關聯 文化提供센터의 기능으로서 확장되고 強化되어야 한다.

이들 都市의 産業體를 정부기관이나 教育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확대로 도움을 얻을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정책결정및 財源 확보에 중앙정부로 부터 어느정도의 自律性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農村을 開發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다. 그 理由로서 農村에서 都市로의 人口移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었으며 물론 그 자체 만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다. 대체로 農村開發은 국내에 農産物을 공급하거나 外國에 수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때로 農村開發이 국가발전에 기초가 된다는 느낌을 가질때가 있다. 왜냐하면 小規模 中小都市는 農村에 기초하며, 또한 農村人口의 所得向上이 大都市에서 生産된 商品과 서비스에의 需要를 效果的으로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村開發이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을 감소시킨다는것을 증명

하지는 못했다. ESCAP 연구도 農村開發指數와 都市化比率 사이의 어떤 相關性을 찾지 못했다.<sup>13)</sup> 그러나 農村開發의 目標가 農村人口의 所得과 安寧을 向上시키는 것이라면 人口移動에 주는 영향력은 그렇게 주요한 것이 아니다.

首都圈 人口를 감소시키고 中小都市를 強化하거나 또는 農村을 開發시키는 政策은 別개로 시행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人口分散政策은 國家的 安定 次元에서 統合 推進해야 한다. 農村開發은 農村地域을 뒷받침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읍및 소도시의 開發을 필요로 한다. 首都圈으로의 人口流入을 제한하는데서 首都에 그 무엇을 하기 보다는 中小都市를 開發하는 것이 더 效果的이다. 이같은 人口分散에 대한 統合的 接近은 地域的 또는 地域間 交通및 通信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sup>14)</sup>

아시아-태평양 地域 國家의 都市化 速度는 높은 수준으로 都市化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經濟成長率과 關係를 나타낸다는 점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과거 二十年間 韓國의 매우 높은 경제성장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都市化 速度 속에 反映되었다.

國內 移動을 제한하는 政府政策은 별 效果가 없어 都市成長 速度가 여전히 빠르다고 자주들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런 政府政策이 없을때

---

13) ESCAP, "Emerging issues and regional activities: Relationship between rur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E/SCAP/ POP. 5/5).

14) This discussion draws heavily on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Habitat), Population Distribution and Urbanization : A Review of Policy Options (Nairobi, 1985).

移動 水準이 어느 정도인지는 測定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國家 第1都市가 第2都市보다 몇배나 큰 나라의 경우는 都市 人口成長의 集中現象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首都圈으로의 人口集中을 中心都市로의 方向 전환을 통해서 그 速度를 둔화시키는 일을 단지 中心都市의 成長速度를 빠르게 할뿐 都市問題를 완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몇몇 計劃樹立者들은 集中化 방지가 都市問題의 解決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태국의 경우 1985年 國內 총생산의 44퍼센트, 그리고 産業生産의 77퍼센트가 방콕및 首都圈 地域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首都圈의 效率性은 국가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전의 생각과는 달리 이들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의 都市化는 都市와 農村間의 經濟的 긴밀성 때문에 農村 및 國家 發展에 모두 기여케 된다. 首都圈으로의 人口集中을 완화시키려는 설익은 시도는 오히려 經濟的으로 非能率的이다. 政府는 거대한 首都圈의 成長을 멈추게 하기 보다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政策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sup>15)</sup>

태국은 1987-1991年의 제6차 開發計劃에서 都市成長 관리의 效率化를 증진시키는 일이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效率性은 地域的 分散 開發, 都市 公共施設 投資, 財政政策, 기관관리 등에서 강조되었다.

---

15) Phisit Pakkasem, "Decentralization is not the answer", The Nation, 5 July 1987, p. 10.

이와같은 接近이 빠른 人口및 經濟的 확장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능력이 없는 지역으로 都市人口를 분산시키려는 시도 보다 더 效果的인 것으로 사료된다.

# 嬰幼兒 死亡力

## — 出產行爲에 대한 意味 —

### 目 次

嬰幼兒 死亡力이 出產力에 미치는 영향.....	33
生物學的 또는 非意圖的 메카니즘.....	34
意圖的 反應 .....	36
出產力이 嬰幼兒 死亡力에 미치는 영향.....	38
出產간격이 嬰幼兒 死亡力에 미치는 영향.....	41
母性健康과 子女生存.....	43 <small>卷</small>
政策的 意味 .....	45

---

이 글은 ESCAP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29인 “Infant and Child Mortality : The Implications for Fertility Behaviour”를 번역한 것이다.



## 要約 및 政策的 意味

어느 社會에서나 嬰幼兒 死亡力은 出産力 水準에 影響을 미친다. 이 關係는 生物學的, 社會的 메카니즘을 통해 作用한다. 또한 높은 出産力도 유사한 生物-社會的 메카니즘을 통해서 높은 嬰幼兒 死亡 水準 유지에 기여한다.

이 논문은 死亡水準이 出産力에, 그리고 높은 出産力이 死亡力에 미치는 效果 모두를 다루었으며 母性健康이 子女 生存에 미치는 影響력도 간단히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政策決定과 관련된 意味를 제시하였다.

一般的으로 嬰幼兒 死亡力이 出産力에 影響을 주는 方法은 ① 嬰幼兒 死亡으로 수유기간이 단축되고 배란작용의 회복이 빨라지는 生物學的 非意圖的 메카니즘, ② 夫婦가 地域의 死亡力 水準 과악(보험효과) 또는 초기 子女死亡 경험(대체효과)에 따른 意志的 反應, ③ 높은 子女死亡 확율에 대한 社會的 反應을 통한다.

生物學的 및 非意圖的 메카니즘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수유는 出産後 無月經 期間을 늘리며 때로는 性的 금욕기간도 늘린다. 따라서 嬰幼兒死亡力의 감소는 수유-무월경-성적 金욕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길지 않은 수유기간이 子女死亡으로 없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이나 대체와 같은 意志的 反應을 父母의 出産目的과 연결된다.

보험이론은 그 目的으로 父母가 老後에 보험으로서 子女生存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死亡力-出産力 關係에서 이 效果를 經驗적으로 證明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대체효과에서 보다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은 子女를 대신한다는 것도 부모가 分명한 出産目標을 갖고 있으며 이 目標이 達成된 뒤에는 出産力을 效果的으로 統制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比較研究에 의하면 避妊使用率이 높아 저출산, 저사망인 사회에서 대체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嬰幼兒 死亡力에 미치는 出産力 效果와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연구가 嬰幼兒死亡 위험은 걱정 가임기보다는 매우 젊거나 매우 나이가 많은 婦人에게서 태어난 경우에 높음을 보여준다.

保健問題는 간단한 것이 없으며 높은 嬰幼兒 및 母性 死亡力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불량주택, 환경위생 및 영양빈곤 등이 모두 작용한다. 또한 부모의 學歷, 家族收入,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의 接近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다른 要因을 고려하여도 出産 時期 및 터울이 母子 保健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結婚年齡, 出産時期 및 터울, 家族크기 등과 같은 出産樣相 等 行爲는 子女의 活動性 및 그 生存確率에 직접 影響을 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나라에서 初婚年齡을 증가시키려는 고무적인 傾向에도 불구하고 經濟·社會的 變化가 여기에 빠르고 극적인 變化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딸을 學校에 보내도록 父母를 격려하는 啓蒙事業과는 별도로 젊은 夫婦의 첫 임신시기를 늦추게 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家族計劃 및 父母되는 일에 관한 教育이 따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프로그램은 그러나 젊은 夫婦 뿐만 아니라 친척들(특히 시어머니)에게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傳統社會에서 젊은 夫婦에게 조기에 아이를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들의 압력이기 때문이다.

많은 社會에서 家族計劃事業은 대개 出產方法, 특히 不妊術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보아 분명한 점은 母子의 건강과 生活을 해치는 것은 多産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비교적 짧은 간격의 임신출산이란 것이다. 또한 出產間隔調節을 위한 成功的인 避妊使用은 可妊期後半에 出產目標를 재고려케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터울조절을 위한 避妊의 動機 및 傳達은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보다 多樣的 方法이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연속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家族計劃事業에서 터울조절 方法에 점점 더 관심이 높아가는데 이는 傳統的 마을 중심의 소규모 산업이나 農業社會보다는 社會·經濟的 發展으로 女性이 보다 많은 教育을 받고 近代 경제 部門에 취업하게 되는 社會에서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家族計劃事業은 性的 금욕이나 수유 등과 같은 전통적 터울조절 방법의 대체방법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社會·經濟的 條件, 醫療技術水準 및 그 利用可能性이 生活水準은 向上시키고 특히 嬰幼兒 死亡力 및 母性 死亡力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社會·經濟 政策과 家族保健 政策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만약에 기본적 保健欲求를 가족계획을 포함하여 의료가 充足시켜 주지만 한다면 女性教育으로 가난한 家庭에서 까지 子女보건 向上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所得向上을 위한 事業과 生活必需品을 統制된 값에 공급하는 것으로도 社會 貧困階層의 영양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중간 정도의 영양결핍이 保健 및 死亡力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어 왔다.

妊娠과 관련된 生物學的 生理學的 條件은 어느정도는 질 높은 保健 醫療, 教育, 子女 및 母性에 대한 좋은 영양의 제공으로 상쇄될수 있을 것이다.

死亡力에 미치는 效果를 둘 다 살펴보고 母性保健이 子女 生存 기회에 미치는 影響력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하며 결론으로 정책결정에의 意味를 알아 보기로 한다.

## 嬰幼兒 死亡力이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

데이비스(K. Davis 1945)와 노트스테인(N. Notestein 1945)에 의해 공식화된 잘 알려진 人口變遷理論에 의하면 死亡力 減少는 비록 상당한 時間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종전에 높은 死亡力 效果를 상쇄시키기에 필요로 했던 出産行爲 調節과 관련된 社會的 規範 및 機關이 서서히 變化함에 따라서 높은 出産力에 대한 社會的 欲求를 창출한다. 그러나 수년간 死亡力과 出産力 간의 相關성에 대한 人口學者들의 合意를 쉽지 않았으며 뒷받침하는 증거도 약하다.

人口學者들이 결국 個個 家庭의 出産行爲에 관한 資料를 利用할 수 있을 때만 어떤 진전이 가능하다. 1975年 CICRED(CICRED, 1975)에서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嬰幼兒 死亡力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메카니즘을 통해서 出産力에 影響을 준다고 밝혔다.

- 嬰兒 死亡에 따라 짧아진 수유 및 보다 빨라진 배란시기를 통해 生物學的 또는 비의도적 메카니즘
- 부부가 인식한 地域社會 內 死亡力 水準에 대한 의지적 반응 (보험효과) 또는 조기 자녀 死亡의 경험에 대한 의지적 반응

(대체효과)

- 높은 子女死亡 확률에 대한 社會的 反應, 즉 높은 出産 目標을 유지하기 위한 社會的 機關 및 團體에 깊이 뿌리박힌 믿음과 實踐

## 生物學的 또는 非意圖的 메카니즘

避妊使用이 적고 수유기간이 긴 社會에서는 理論적으로 볼때 嬰幼兒 死亡力이 總 出産率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增加가 단순 數學的 模型이 제시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 왜냐하면 긴 수유기간이 産後 無月經 기간에 生物學的 影響을 주기 때문이다.

嬰幼兒 死亡力 減少는 子女 死亡으로 수유가 중단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수유-무월경 관계를 변화시킨다.

뿐만아니라 많은 傳統的 農村社會에서 수유기간은 産後 금욕기간 또는 性交 回數의 감소(때때로 엄마가 아이를 밤새 돌보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자므로), 또는 不安全 性交로 보호를 받는다 (Santow, 1987). 따라서 이런 社會에서 수유는 월경의 재개뿐만 아니라 정상적 性關係의 재개 시기로도 影響을 받는다. 젖을 빨던 아기를 잃게되면 아기의 죽음이 수유의 보호 필요성을 잃게 하기 때문에 곧 빨리 정상적 성적 관계가 재개된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모델과 여러 開發社會에서 수집한 資料를 기초

人口學 研究 및 文獻에서 嬰幼兒 死亡力과 出産行爲와의 복합적인 관계는 오래전부터 兩方的인 過程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편으로 높은 嬰幼兒 死亡力이 生物學的 및 社會的 메카니즘을 통해 움직이는 모든 社會에서 出産力 水準에 의미를 주며, 또 한편으로는 높은 出産力은 다시 生物學的 및 社會的 過程을 거쳐서 높은 嬰幼兒 死亡力을 유지케 한다.

1970年代 中半에 높은 嬰幼兒 死亡力이 出産力 감소의 장애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死亡力 감소가 出産力 감소 방법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Preston, 1975). “정부는 死亡力을 낮추고 人口成長을 감소하는데 있어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기 보다는 家族計劃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그 目標에 쉽게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人本主義的 目的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Kunstadter 1978 p. 85)

1984年 멕시코에서 世界人口會議가 열렸을 때만 해도 後者 쪽의 주장이 팽배 하였었다. 그 결과의 하나가 出産力 및 出産樣相이 嬰幼兒 死亡力에 미치는 영향을 점차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건강한 出産形態가 母子保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몇몇 건의를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높은 結婚年齡, 첫 出産時期의 늦춤, 出産間隔의 증가와 子女數 감소를 위한 家族計劃事業의 뒷받침 등이 포함된다.

이 論文은 死亡力 水準이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과 높은 出産力이

로 한 연구로 나타난 死亡力 감소로 인한 總 出產率 增加는 단순한 數學的 模型에서 유추한 것보다  $\frac{1}{3} \sim \frac{1}{2}$  가량이 적다.

## 意圖的 反應

보험과 대체인 두가지 의지적 反應은 각각이 獨自的이라기 보다는 함께 作用한다. 그러나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이 分析上 편리하다.

父母의 出產目標가 있다면 이것은 生存할 것으로 기대되는 子女數에 의거한다. 보험이론은 目標는 父母가 年老했을때 보험으로서 生存한 자녀를 갖는 것이다. 만약에 부모가 그들이 늙었을때 살아남아 그들을 보살필 최소한 3名の 子女를 원한다면 특히 孟加拉나 네팔같이 死亡 水準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전에 죽을 위험에 대비해서 최소한 7名の 子女를 낳아야 한다. 아들 선호사상이 강한 高死亡力 社會에서는 부모가 늙었을때 보살필 두 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10名の 子女를 낳아야 할 것이다(ESCAP, 1985. pp. 4~5). 이와 같은 出產水準은 실제로 生物學的인 한계에 가깝다.

死亡力 水準이 떨어져감을 감안할때 적어도 보험효과가 死亡力에 미치는 出產力의 지나친 보상효과를 낳는다고 믿을수 있는 理論的 理由가 있다(Preston, 1975). 韓國같이 비교적 死亡力이 낮은 나라도 강한 아들 선호 사상으로 부모가 두명의 아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비교적 대가족을 갖으려 한다. 따라서 비록 幼兒 死亡力이 더 떨어진

다 해도 出産力은 代替水準 以上으로 남는다.

死亡力-出産力 關係에서의 보험효과는 증명하기가 어렵고, 그보다는 代替效果에 대한 증거가 더 많다. 죽은 자녀에 대한 代替는 父母가 出産 目標를 갖고 있으며 이 目標가 成就된 다음에야 效率的인 出産 調節이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分明히 죽은 子女에 대한 代替는 婦人의 生産時期 안에서만 가능하다.

比較研究에 의하면 代替效果는 分明 避妊使用率이 높은 低出産 低死亡 社會에서 강하다. 그러나 이런 社會에서는 出産力에 미치는 더 이상의 死亡力의 效果는 子女 死亡을 경험하는 夫婦數가 적음으로 해서 적게 나타난다.

ESCAP 연구(1985)에서 살펴본 高死亡力 社會에서는 子女 死亡 經驗有無에 관계없이 避妊使用率은 전체가 낮다. 뿐만아니라 子女 出産 數 進행에 따른 結婚 出産率을 연구할 25개국 比較研究에 의하면 비교적 死亡力이 높고 避妊使用率이 낮은 社會에서 代替效果가 作用한다는 증거가 있다(Cochrane and Zachariah, 1984). 子女死亡을 경험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첫째, 둘째, 셋째번 출산에서 추가자녀를 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외는 있지만 그 以上の 子女 출산에서도 일반적 양상은 비슷하다. 대부분의 경우 死亡經驗 기간이 가까울수록 추가자녀를 가질 확율이 높다.

## 출산력이 嬰幼兒 死亡力에 미치는 영향

어느 사회에서나 적절한 出産 年齡보다는 매우 젊거나 또는 매우 나이가 많은 婦人에게서 태어난 子女가 嬰幼兒期에 죽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다(表 1). 結婚年齡이 嬰兒死亡 위험 증가 및 완화에 미치는 効果는 전체적인 嬰兒 死亡水準과는 무관해 보인다.

젊은 年齡의 婦人에게서 태어난 嬰兒의 死亡危險이 높다는 점은 첫아이 出産을 경험하는 十代 少女의 心理的 未成熟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原因은 子女養育 經驗이 없는 社會적 未成熟과 낮은 社會的 教育的 位置에 의해 증폭되는 경향이다. 20歲 미만의 女性에게서 태어난 嬰兒의 死亡 위험의 生物學的 原因은 이들 嬰兒들 體重이

**Table 1: Infant mortality rates<sup>a/</sup> by age of mother at birth  
(World Fertility Survey data, birth 0-9 years prior to survey)**

Area/country	Year of survey	Age of mother at birth (years)			
		20	20-29	30-39	40+
South Asia					
Bangladesh	1975/76	174	113	113	[124]
Nepal	1976	199	145	129	[155]
Pakistan	1975	195	130	117	[136]
Sri Lanka	1975	72	57	55	[96]
South-east and East Asia					
Indonesia	1976	125	88	89	[120]
Malaysia	1974/75	56	37	36	[41]
Philippines	1978	56	53	62	80
Republic of Korea	1974	[80]	43	51	[77]
Thailand	1975	102	67	75	[87]

Source: Rutstein, 1983.

Notes: [ ] Rate was computed on the basis of fewer than 500 live births.  
a/ Probability of dying before reaching first birthday, per 1,000 live births.

비교적 가볍다는 점이다.

한편 年齡이 많은 婦人의 경우 嬰兒死亡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母性의 결핍증세, 즉 영양부족, 빈혈, 과도한 再生産의 生物學的 需要와 연결된 일반적 영향 등 때문이다(Bhatia 1983, p. 174). 이와같은 生理學的 原因으로 나이가 많은 婦人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조숙하거나 體重이 가벼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사회적, 경제적 要因이 함께 作用한다. 40代에도 계속 妊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文明이며 대개 大家族인데 이 家族의 소득수준은 낮을 확율이 높다.

1~2歲 幼兒 및 2~5歲 어린이들의 경우는 死亡力과 母性 年齡間의 相關性이 자주 거론되지는 않는다. 生物學的인 要因이 嬰兒 時期에 作用하는 반면에 사회·경제적 要因은 나이가 좀 먹은 幼兒의 生存率에 더 영향을 준다.

出産時 母性 年齡과 出産順位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첫번째 아이는 보다 젊은 婦人에게서, 그리고 出生順位가 높은 아이는 보다 나이가 많은 婦人에게서 태어나게 된다.

첫째 出生과 높은 出生順位가 평균보다 死亡率이 높은 原因은 母性 年齡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다. 結婚과 妊娠年齡이 빠른 社會에서 첫째 出生을 母性의 社會的 生理學的 미숙으로 인해 위험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結婚 및 첫째 出産 年齡이 높은 경우는 첫째 出生의 嬰兒死亡率은 매우 낮다. 産前管理 및 出産時 質的 保護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表 2).

Table 2: Infant mortality rates<sup>a/</sup> by birth order (World Fertility Survey data, births 0-9 years prior to survey)

Area/country	All births	Birth order			
		1st	2nd-3rd	4th-6th	7th+
<b>South Asia</b>					
Bangladesh	135	173	139	109	127
Nepal	142	171	140	142	162
Pakistan	139	170	140	125	129
Sri Lanka	60	52	57	59	73
<b>South-east and East Asia</b>					
Indonesia	95	108	92	86	112
Malaysia	36	41	36	36	47
Philippines	58	45	53	54	80
Republic of Korea	42	44	42	50	75
Thailand	65	71	65	69	103

Source: Rutstein, 1983.

Note: <sup>a/</sup> Probability of dying before reaching first birthday, per 1,000 live births.

첫째, 出生兒가 두번째 以上 出生兒보다 死亡力이 높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初期 幼兒 死亡은 出生順位와 함께 높아진다.

出生順位가 높은 아이가 어려서 死亡할 확율이 높은 理由는 母性 年齡과 관련된 것과 유사하다. 즉 母性의 生理的 결함, 母의 보호, 음식 및 기타 資源에 대한 형제자매간의 경쟁 등이다. 경쟁적인 상황에서 어린 아이는 나이가 많은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취약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가지 예외는 있다. 정상적 이유 이전에 임신이 될때인 데 잠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나이가 많은 쪽이다.

母性 年齡과 出生順位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獨立的 效果를 찾아 내기가 어렵다. 醫學的 經驗에 의하면 年齡이 많은

婦人에게서 난 첫 아이와 젊은 婦人에게서 태어난 높은 出生順位의 아이가 평균보다 嬰兒時 死亡할 위험이 높다. 開發途上國의 경우는 人口動態統計가 충분치 않고 標本調査도 신뢰성 있는 比率을 생산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出生順位와 母性年齡別 嬰幼兒 死亡率을 구하기가 어렵다.

母性 年齡과 出生順位가 嬰兒 死亡 水準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Trussel & Pebley(1984)는 WFS 참가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分析한 결과 전체적으로 3名の 子女를 낳고 妊娠出産을 中斷한 경우 嬰幼兒 死亡力이 대략 8퍼센트 가량 감소된다고 밝혔다.

## 出産간격이 嬰幼兒 死亡力에 미치는 영향

保健問題는 간단한 것이 거의 없는데 幼兒및 母性 死亡率도 예외는 아니다. 住宅의 貧困, 환경위생 不良및 영양불량이 모두 작용하며, 家族 所得 水準과 醫療및 社會 서비스 시설에의 接近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그 증거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例로 Omran & Standley 1976, 1981, Winikoff 1983, Wray 1971) WFS 연구에서도 모든 要因을 다 고려해도 出産 時期및 間隔이 母子保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出産間隔에 관한 연구들을 比較할때의 문제점은 연구자들이 間隔을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다음 그림이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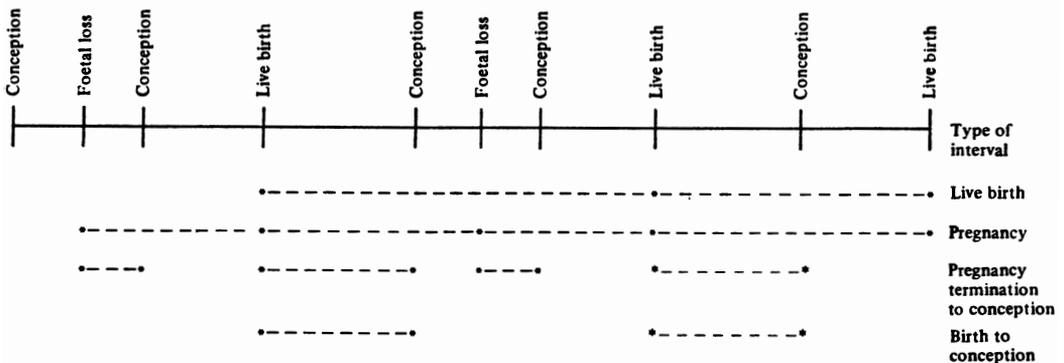
다른 측정방법 및 比較의 어려움을 잘 나타낸다).

1年 미만의 짧은 間隔으로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두번째 출산은 대개 미숙아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첫번째 임신 결과에 불구하고 다시 임신을 하려면 2~3달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번째 아이의 産後 死亡 위험성이 짧은 間隔 때문인지 아니면 미숙함과 관련된 위험 타인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出産間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間隔이 두번째 子女에게 미치는 效果를 보여 준다. 그러나 그 間隔은 첫번 또 그 앞의 子女의 生存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가 수유를 빨리 중지했거나 또한 배란이 빨리 이루어져서 짧은 出産間隔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아니면 만약에 수유 중에 다시 임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임신으로 젖의 분비가 중지되 수유를 할수 없게됨으로 子女生存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出産間隔이 앞뒤의 두 子女의 生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Figure: Events determining the length of a particular type of interval



出産間隔은 젊은 婦人에게 일반적으로 짧으며 婦人の 可妊力이 떨어  
져감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母性年齡은 임신산모및 母子 死亡力과  
별도의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出産 時期및 間隔 그리고 이것이  
保健에 미치는 效果를 研究할때는 年齡 또는 順位 또는 이들의 복합  
적인 效果를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出産間隔은 공통적인 문제이다.

## 母性健康과 子女生存

出産力과 幼兒生存의 관계 메카니즘을 밝혀보려는 研究들은 母性の  
나쁜 건강상태를 幼兒 生存率을 떨어뜨리는 原因 중의 하나로 자주  
거론한다. 또한 母性 死亡力과 영양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妊娠 出産과 관련된 母性 健康의 극단적인 경우는 産科的 原因에  
의한 死亡이다. 開發途上國에서 母性死亡力은 매우 높은것으로 推定된  
다. 여러나라에서 出産 1,000 件當 4件 정도의 母性死亡이 있으며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의 일부 등에서는 出産 1,000件當 7  
정도로 높다. (Kamel, 1983 pp 180-181. Tietze 1977. Dyson, 1  
981) 母性年齡과 順位도 妊娠 出産과 관련된 死亡 위험에 강한 效果  
를 지닌다. 한 역학연구 (Khan and others, 1986)에 의하면 방글라데  
시의 경우 35~39歲에서 出産 1,000件當 母性死亡이 18이며 40歲 以上  
에서는 25라고 보고되었다. 順位 5번째 以上에서는 出産 1,000件當

母性死亡이 14인데 順位 2 以下에서는 약 4로 나타났다. 칸(Khan)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母性死亡 原因 중에서 古典的인 3가지 理由 즉 감염, 경기, 출혈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産科的 原因에 의한 높은 死亡은 出産時 不充分的 管理와 함께 産前管理 施設에의 接近 및 利用의 不足을 反映한다 하겠다. (Bhatia 1983 pp 172-174)

여러 開發途上國에서 母性 死亡은 곧 新生兒의 生存率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母性死亡의 경우 그 자녀가 28日 以上 生存한 例가 없다고 한다. (Khan and others, 1986, p10)

높은 母性 死亡 水準은 産科的 原因 以外에도 반복되는 不法的 人工妊娠中絶에서도 이유를 찾을수 있다 (Karkal, 1986) 대부분의 경우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精確한 統計가 없지만 병원記錄을 分析해보면 産婦人科에 기록된 모든 경우의 10-45라는 높은 比率이 흔히 많은 치명적 합병증을 겪는다고 한다.(Bhaia, 1983, p 174) 대개의 경우 人工妊娠中絶은 그 고장의 진료원이 비과학적, 비위생적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 합병증 그리고 가끔 死亡까지 이르게 된다.

母性の 營養缺乏도 높은 嬰兒 死亡 原因 중의 하나로 자주 손꼽히는 健康問題이다(Lechtig and others, 1978, pp 147-174). 어머니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체중이 미달된 아이를 낳게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 아이는 初期 死亡率이 평균보다 높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幼兒時節 營養狀態도 나중에 그 자녀의 嬰兒 生存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찾을 수 있다.

體重이 가벼운 아이는 嬰兒期 때 살아 남아도 幼兒期 때 정상 체중아 보다 많은 保健問題를 갖는다. (WHO 1980. pp 124-132) 母性의 營養不足은 또한 嬰兒의 영양상태 (와 生存機會)에 젓분비 및 수유기간을 통해 영향을 준다.(Wray. 1978. pp 197-229) 영양결핍이 지나치면 모유의 質에 영향을 준다. 특히 지방의 감소로 젓의 영양가치가 줄어 든다. 한편 영양결핍 정도가 보통 정도이면 質은 그대로이나 量이 줄어든다.

모유의 量은 대개 수유기간과 밀접하다. 한 연구(Rajagopalan, 1974)에 의하면 인도의 30퍼센트 정도가 1年 內에 모유 분비의 중단되어 수유를 중단한다고 한다. 미가마(Meegama, 1986)는 1930年代 스리랑카의 한 醫療部門 官吏의 말을 인용해서 어머니가 말라리아와 십이지장충 감염으로 수유를 못하게 될 때는 수유대신 여러가지 값싼 대용품들을 먹여서 嬰兒死亡力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 政策的 意味

結婚年齡, 出產時期 및 間隔, 家族크기와 같은 出產 관련 양상 및 行爲은 직접 어린이의 生存能力 및 生存確率에 영향을 준다.

여러 開發途上國에서 結婚을 제한하는 法的 年齡에도 불구하고 文化的 傳統에 따라 조기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소녀의 경우 사춘기 年齡도 상당하다. 結婚年齡을 늦추려는 法的 노력은 대개 부분적으로는 다른 제도적 變化나 對策의 結果로 인해 오로지 부분적 影響력을 지닐뿐이다. 10代 少女들이 教育을 계속 해 받으려는 의지가 적은 곳이나 또는 집밖에서 소득을 얻을수 있는 職業을 찾기가 社會적으로 어렵거나 실제로 불가능한 곳에서 結婚을 늦춘다는 것은 손해로 여겨진다.

아시아-태평양 地域 여러 國家에서 初婚年齡을 늦추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經濟·社會的 變化가 이 부분에는 빠르고 극적인 變化를 일으킬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딸을 학교에 보내게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弘報, 啓蒙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젊은 夫婦의 첫 妊娠을 늦추게 하기 위해 家族計劃및 책임있는 父母에 관한 教育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프로그램은 그러나 젊은 夫婦뿐만아니라 친척들 (특히 시어머니)에게도 重點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傳統社會에서 이들의 압력은 젊은 夫婦들의 조기 임신에 影響을 주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家族計劃事業은 마지막 方法, 특히 不妊術에 지나친 重點은 두고 있다. 要員및 醫療人力은 不妊 目標達成 壓력을 받고 있으며 그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母子 保健및 生活에 가장 큰 惡效果는 임신뿐만아니라 비교적 짧은 妊娠間隔에서도 기인한다는 증거는 많다. 한 推計 (Trussel and Pebley, 1980)에 따르면 20-34歲 年齡 婦人의 出產制限에 따라 4번째 以上の 出產을 하지 않을 경우 嬰兒死亡力은 약 12퍼센트 정도가 감소된다.(다른 要因은 통제)

그러나 25개국 자료를 분석한 Maine & McNamara (1985. p17)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든 자녀를 2년 이상의 간격으로 둘때 嬰兒死亡이 5에서 1 점도는 피할수 있다고 한다. Trussel & Pebley (1984. p4)는 같은 資料를 利用하여 2번째 이상 出産의 간격을 2년 以上으로 떠어도 嬰兒死亡力을 10퍼센트, 幼兒死亡力 (1~4세)을 20 퍼센트 以上 줄일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子女 터울을 위한 성공적 避妊 使用으로 出産可能한 生活週期 後半에 出産計劃을 재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터울조절을 위한 避妊法의 多樣性 또한 夫婦들이 수용가능한 方法을 찾을수 있게 해줌으로 避妊使用을 증가시키게 될 전망이다. 터울조절을 위한 避妊 동 기, 避妊器具의 配布및 器具는 보다 시의성을 요구하므로 보다 많은 선택이 가능해야 하고 서비스는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 모든 이같은 事業은 보다 잘 훈련되고 의식적인 말단수준의 要員이 필요하며 다른 어떤 事業보다도 人口比에 대한 人員도 많아야 할 것이다.

家族計劃事業에서 터울조절방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데 특히 전통적 마을 중심의 소규모 산업지역이나 農村보다는 社會經濟的 發展으로 女性이 보다 많은 教育을 받고 經濟活動에의 참여도 증가하는 사회에서 터울조절 방법이 더욱 절실하다. 教育과 近代化가 出産後의 性的 금욕기간과 긴 수유기간과 같은 전통적 行爲를 줄이게 되는데 이 두가지 傳統은 子女生存 기회를 向上시키는데 필수적인 긴 터울을 확보케 해 준다.(Santow & Bracher 1984) 家族計劃事業이 이들 傳統

的 的 的 方法을 대치할 수 있는 方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社會經濟的 特性에 따라 醫療技術 및 그 使用可能性이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특히 母性 및 嬰幼兒 死亡力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런 發展이 出產行爲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요한다. 아마도 다른 접근을 제외한 한가지 接近, 例를 들어서 보건서비스와 發展 대신에 家族計劃만을 또는 그 反對를 강조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社會 및 經濟政策과 家族保健政策은 相互 支接的이 되어야 한다.

女性 教育은 1차 보건의료서비스가 기본적 保健欲求를 充足시켜 주기만 한다면 貧困한 家庭의 子女 健康 向上에 크게 기여케 된다. 所得向上事業과 統制된 가격에 의한 기본 식료품의 공급도 社會의 貧困階層에게는 영양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중간 정도의 영양부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健康 및 死亡力에 미치는 効果도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영양과 관련된 관여가 死亡力에는 측정할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지만 保健과 營養事業의 統合을 통해 영양상태와 子女生存 向上이 두가지 면에서 큰 이득을 얻을수 있다. (Beghine & Vanderveken 1985. pp 98-99)

結論的으로 이 논문에서 밝혀진 妊娠관련 生物學的 生現學的 불리한 條件은 질높은 保健醫療, 教育, 母子의 좋은 영양상태 등과 같은 상황을 통하여 상쇄시킬수 있다. 불행스럽게도 여러 社會의 많은 사람

들에게 있어 이들 要件은 아직 알수없는 꿈이다.

## References

- Alauddin, M. (1986). "Maternal mortality in rural Bangladesh: the Tangail district",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17, No. 1, pp. 13-21.
- Beghin, I., and M. Vanderveken (1985). "Health intervention programmes in developing countries: nutritional programmes", in J. Vallin and A.D. Lopez (eds.), *Health Policy, Social Policy and Mortality Prospects* (Liege, Ordina Press), pp. 81-102.
- Bhatia, S. (1983).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female health and survival: evidence from countries of South Asia", in A.D. Lopez and L.T. Ruzicka (eds.), *Sex Differentials in Mortality: Trend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Canberra, Department of Demograph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p. 165-178.
- Chalmers, I. (1980). "Better perinatal health: Shanghai", *Lancet*, 19 January.
- Chase, H.C. (1961). *The Relationship of Certain Biologic and Socio-Economic Factors to Fet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rtality: I. Father's Occupation, Parental Age and Infant's Birth Rank* (Albany,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 \_\_\_\_\_ (1962). *The Relationship of Certain Biologic and Socio-Economic Factors to Fet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rtality: II. Father's Occupation, Infant's Birth Weight, and Mother's Age* (Albany,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 C I C R E D (1975). *Seminar on Infant Mortality in Relation to the Level of Fertility* (Bangkok, 6-12 May).
- Cochrane, S., and K. Zachariah (1984). "Infant and child mortality as a determinant of fertility: the policy implications", in United Nations, *Fertility and Family*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4.XIII.7), pp. 253-265.
- Davis, K. (1945). "The world demographic transi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o. 237, pp. 1-11.
- Dingle, J.H., G.F. Badger and W.S. Jordan (1964). *Illness in the Home: Study of 25,000 Illnesses in a Group of Cleveland Families* (Cleveland, Western Reserve University Press).
- Dyson, T. (1981). "Infant,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and associated conditions of health in the Greater Kabul region of Afghanistan", *World Health Statistics Quarterly*, vol. 34, No. 1, pp. 14-43.
- ESCAP (1985). "The Influence of Infant and Child Mortality on Fertility in Selected Countries of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20 (Bangkok).
- Freedman, R. (1961).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a trend report and bibliography", *Current Sociology*, vol. 10-11, No. 2, pp. 35-119.
- Gray, R.H. (1981). "Birth intervals, postpartum sexual abstinence and child health", in H.J. Page and R.L. Leshaeghe (eds.), *Child-spacing in Tropical Africa: Traditions and Change* (London, Academic Press), pp. 93-110.
- Heady, J.A., C. Daley, and J.N. Morris (1959). "Social and biological factors in infant mortality: II. Variation of mortality with mother's age and parity", *Lancet*, vol. 1, pp. 395-397.
- Heady, J.A., and J.N. Morris (1956). "Variations of mortality with mother's age and parity",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of the British Empire*, vol. 66, pp. 577-593.
- Heer, D. (1966).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mography*, vol. 3, No. 2, pp. 423-444.
- Hobcraft, J.N., J.W. McDonald and S.O. Rutstein (1983). "Child-spacing effects on infant and early child mortality", *Population Index*, vol. 49, No. 4, pp. 585-618.
- \_\_\_\_\_ (1985). "Demographic determinants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rtality: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Studies*, vol. 39, No. 3, pp. 363-385.
- Kamel, N.M. (1983).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emale mortality associated with women's reproductive role", in A.D. Lopez and L.T. Ruzicka (eds.), *Sex Differentials in Mortality: Trend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Canberra, Department of Demograph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p. 179-192.
- Kane, P. (1984). "An assessment of China's health car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vol. 11, pp. 1-24.
- Karkal, M. (1986). "Health of mother and child survival", in K. Srinivasan and S. Mukerji (eds.), *Dynamics of Population and Family Welfare, 1985* (Bombay, Himalaya Publishing House), pp. 358-374.
- Khan, A.R., F.A. Jahan and S.F. Begum (1986). "Maternal mortality in rural Bangladesh: the Jamalpur district",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17, No. 1, pp. 7-12.
- Kunstadter, P. (1978). "Child mortality and maternal parity: some policy implication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and Digest*, vol. 4, No. 3, pp. 75-85.
- Lechtig, A., and others (1978). "Effect of maternal nutrition on infant mortality", in H.W. Mosley (ed.), *Nutrition and Human Reproduction* (New York, Plenum Press), pp. 147-174.

- Maine, D., and R. McNamara (1985). *Birth Spacing and Child Survival* (New York, Center for Population and Family Health, Columbia University).
- Meegama, S.A. (1986). "The mortality transition in Sri Lanka", in United Nations, *Determinants of Mortality Change and Differentials in Developing Countrie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5.XIII.4), pp. 5-32.
- Mehta, A., and K. Jayant (1981). "Perinatal mortality survey in India, 1977-1979: Part I. Ident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 needs",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in India*, vol. 31, No. 2, pp. 183-214.
- Morris, J.N., and J.A. Heady (1955). "Social and biological factors in infant mortality", *Lancet*, vol. 1, pp. 343-349 and pp. 554-560.
- Notestein, F.W. (1945). "Population - the long view", in T.W. Schultz (ed.), *Food for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6-57.
-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1986). *Mortality Statistics, 1983. England and Wales: Perinatal and Infant - Social and Biological Factors*,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Series DH3, No. 15 (London, H.M.S.O.).
- Omrán, A.R., and C.C. Standley (eds.), (1976). *Family Formation Patterns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_\_\_\_\_ (1981): *Further Studies on Family Formation Patterns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Preston, S. (1975). "Introduction", *Seminar on Infant Mortality in Relation to the Level of Fertility*, Bangkok, 6-12 May 1975 (Paris, C I C R E D).
- \_\_\_\_\_ (1980). "Cause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declin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in R. Easterlin (ed.),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Chicago,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Rajagopalan, S. (1974). *Tamil Nadu Nutrition Project* (Madras, India, Kalakshetia Publications Press).
- Rutstein, S.O. (1983). *Infant and Child Mortality: Levels, Trends and Demographic Differentials*, Comparative Studies No. 24 (London, World Fertility Survey).
- Ruzicka, L.T., and P. Kane (1987). *Mortality Transition and Health in Selected Countries of the ESCAP Region: Comparative Analysis of Mortality in Six Countries* (Bangkok, United Nations).
- Santow, G. (1987). "Reassessing the contraceptive effect of breastfeeding", *Population Studies*, vol. 41.
- \_\_\_\_\_ and M. Bracher (1984). "Child death and time to next birth in Central Java", *Population Studies*, vol. 38, No. 2, pp. 241-254.
- Tietze, C. (1977). "Maternal mortality (excluding abortion mortality)", *World Health Statistics Report*, vol. 30, No. 4, pp. 312-339.
- Trussel, J., and A.R. Pebley (1984). *The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Fertility and Infant,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698 (Washington, D.C.).
- United Nations (1954). "Foet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rtality: Volume II. Biolog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Population Studies*, 13 (ST/SOA/Ser. A/13/Add.1) (New York).
- United Nations (1975).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Conference, 1974*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75.XIII.3).
- United Nations (1984). *Report of the Internal Conference on Population, 1984*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4.XIII.8).
- Winikoff, B. (1983). "The effects of birth spacing on child and maternal health",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14, No. 10, pp. 231-245.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0). *Sixth Report on the World Health Situation: Part One Global Analysi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ray, J.D. (1971). "Population pressure on families: family size and child spacing", *Rapid Population Growth*, vol. 2 pp. 403-461, Report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1978). "Maternal nutrition, breast-feeding and infant survival", in H.W. Mosley (ed.), *Nutrition and Human Reproduction* (New York, Plenum Press), pp. 197-230.
- Wray, J.D., and A. Aguirre (1969). "Protein-calorie malnutrition in Candelaria, Colombia: I. Prevalence, social and demographic factors", *Journal of Tropical Pediatrics*, vol. 15, pp. 76-98.

# 人口와 發展計劃의 統合을 위한 研究의 必要性

## 目 次

制度的 調整 .....	55
人口學的 水準, 傾向 및 推計 .....	61
人口와 發展의 相互關聯性에 대한 研究 .....	64
人口政策研究 .....	78
優先順位 決定 .....	88

---

이 글은 ESCAP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30인 “Research Requirement for Integrating Population into Development Planning”을 번역한 것이다.



## 要約 및 政策的 意味

人口變數는 社會經濟 變數의 주요 결정요인인 동시에 그 결과이므로 아시아 태평양 地域國家들은 人口 및 관련 경제 發展 프로그램에서 統合的 接近法을 채택, 따르기로 하였다. 따라서 人口와 發展 프로그램은 정밀하게 遂行된 연구사업에 기초해서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글\*은 이분야의 연구 多樣性에 관한 개략으로서 研究의 遂行 및 傳播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였으며 計劃樹立者에게 여러가지 가정 하에서의 현 人口傾向과 앞으로의 發展에 대한 推計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또한 人口變數가 社會經濟的 變化에 주는 영향력을 밝히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이는 人口 관련 政策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또한 그 반대로 여기서는 人口에 영향을 주는 發展政策의 기초로서 人口變化에 대한 社會經濟的 決定要因을 밝힐 연구의 필요성도 고려하였다.

또한 人口變化를 目的으로 고안된 特定 政策 및 事業의 効率性和 效果 評價 研究도 다루었으며 家族計劃 및 기타 發展事業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도 고려하였다.

研究活動의 우선순위 결정을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統合된 人口와 發展計劃樹立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의 우선

---

\* 이글은 뉴욕 UN본부 人口料, 人口 및 發展係長인 David E. Hrolacher의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난바는 UN이 아니라 저자 자신의 견해이다. 보다 상세한 논문은 1988 6.6~10간 방콕에서 열렸던 “人口 및 發展計劃을 위한 模型”에 관한 ESCAP 지역 세미나에서 발표된바 있다.

순위 확립시에는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 人口 및 發展에 대한 國家의 目標
- 資料의 利用可能性
- 적절한 개념들과 研究方法의 利用可能性
- 研究結果의 活用 展望
- 기술적 전문인의 利用可能性

우선순위는 時間的 개념으로 확립해서 몇몇 연구는 단기 또는 즉시 또는 중·장기 연구보다 먼저 遂行될수 있게 해야 한다.

원래의 原稿는 1989年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로 발간된 예정인데 附錄이 두개로서 하나는 研究方法에 관한것이며 다른 하나는 人口 및 發展 模型에 관한 것이다.

社會經濟的 要因과 人口學的 要因간의 相互作用은 매우 크고 또한 方向이나 強度는 다양한 주요 간접효과를 포함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人口와 發展政策은 가상적 模型에 의한 증명되지 않은 假定보다는 精確하게 시행된 研究사업에 기초하여야 한다.

프라로크(Plarogue)는 人口要因을 社會經濟 發展計劃에 통합시키는 模型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研究가 포함된다. ① 구체적 예측과 推計 ② 이같은 人口學的 推計의 社會經濟的 要因으로의 전환 ③ 社會經濟的 決定要因과 人口學的 變化 結果에 관한 研究 ④ 人口學的 要求에 부응하고 人口政策및 관련 조치의 樹立및 評價 ⑤ 이와같은 것을 이용, 人口學的 영향력을 고려한 전체 發展計劃 및 事業計劃의 樹立이다. 따라서 統合된 計劃樹立과 관련된 주요 研究事業은 ① 人口學的 水準과 傾向의 예측및 추계 ② 人口와 發展의 相互作用 성격과 강도에 대한 확신 ③ 여러가지 형태의 정책 分析으로 구성된다.

人口와 發展 관련 研究計劃書 作成에 다양성을 가져오하고자 하는 이 글에서는 프라로크(Plarogue)가 제시한 研究사업 모형을 기초로 한다.

## 制度的 調整

人口를 發展計劃樹立에 統合시키기 위한 研究 必要性을 평가할 때는 研究結果가 計劃樹立 과정에 실제로 活用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實用的 의미가 적은 研究결과는 活用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政策問題를 찾아내고 研究結果를 評價하는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sup>3)</sup>.

國家計劃 樹立을 담당하는 부처 안에 人口計劃部署의 형태를 띠는 영구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왔다<sup>3)</sup>. 이같은 部署는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 및 촉진시키는데 1次的 책임을 진다. 대체로 이런 기구는 정책수립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문제에 연구노력을 쏟기 마련이다. 비록 人口 母數値의 추정과 같은 기본적 연구를 한다고 하여도 이같은 연구는 우선순위가 낮으며 보다 알맞는 연구는 人口成長의 經濟的 意味 分析, 또 家族計劃事業과 관련된 行政的 문제 등이 될 것이다. 태국이 計劃樹立 부처에 人口部署를 설치한 아시아-태평양 地域의 첫번째 국가이다. 일찌기 1969년에 國家 經濟社會 發展 委員會 人力計劃局 안에 人口計劃科를 설립하였다. 방글라데시는 1981년에 企劃委員會 社會經濟局 안에 人口 및 發展計劃科를 설치하였으며, 필리핀도 1981년에 經濟發展 부처에 의해 人口와 發展計劃사업이 수행되어 그 결과로 중앙과 3개 지방관청에 人口/發展 計劃 部署가 설립되었다. 스리랑카는 企劃 施行部署에 人口局을 두고 있다. 韓國은 韓國開發院 內에 人口 및 計劃 담당을 두고 있고 파키스탄에는 企劃院 안에 人口部署를 두고 있다.

人口計劃部署의 研究機能 중의 하나는 추가로 필요한 資料가 무엇인지를 밝혀 그 資料를 수집하는 일이다. 또 다른 것은 이미 완결된 研究의 인벤토리를 만들고 政策的 문구를 모아서 統合된 人口-發展 計劃樹立에 필요한 情報베이스를 擴大할 수 있는 새로운 研究를 遂行 또는 뒷받침하는 일이다. 또한 計劃과 관련된 다른 주요 部署가 그

나름의 機能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人口學的 資料와 研究結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출판, 세미나, 월샐을 통하여 研究結果를 배포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部署의 研究는 3가지 조직을 통할수 있는바, 첫째가 기초 人口및 社會經濟 資料를 수집하는 책임을 맡은 統計部署이며, 둘째가 大學과 같은 自律的 研究機關이고 셋째가 企劃院 이다. 대개의 경우 人口部署가 研究의 1차적 책임을 지나 自律的 研究機關도 人口-發展의 相互作用을 밝히는데 적극 참여하거나 獨立的으로 연구케 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 部署나 大學에서의 研究도 有用하기는 하지만 發展計劃部署안에서 人口問題를 진지하고 계속적으로 研究하는 努力을 대신할 수는 없다. 반대로 文教部, 保健社會部, 農林部, 地域開發部 등에 人口開發 研究 能力을 개발시킬수 있다. 왜냐하면 中央의 企劃 담당 部가 다른 部에서 요구하는 研究 필요에 즉각 對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人口部署의 研究活動은 신뢰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수 있다. 人口와 發展의 연계에 대한 확실한 分析的 證據 없이는 統合의 長點에 대하여 관련 當국자를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 人口部署로 부터 政策研究를 요청받는 自律的 社會經濟 政策研究機關이 많은 연구를 수행해 준다. 이런 연구기관으로는 韓國의 KDI, 태국이 TDRI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필리핀의 ID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등이다.

差異死亡力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적합치 않다. 이같은 推定은 센서스나 서베이에 포함된 出産兒 중 死亡率과 관련된 질문 分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센서스나 서베이에 포함된 地域社會, 家族 및 家口 관련 資料도 사용될수 있다<sup>12)</sup>.

### 〈人口移動〉

政策樹立者들이 점차로 人口分散方法을 찾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이 분야 연구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점점 더 명백해 지고 있다. 移動분야 政策 및 計劃樹立에는 몇사람이 움직이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왜 움직이는가에 관한 正義된 자료가 필요하다. 計劃 및 政策 樹立에 유용한 자료가 되려면 적절한 간격, 공간 분포, 移動類型에 대한 개념정의 등을 고려해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人口 再分散에 관한 研究도 문제인식, 목표설정,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은 移動관련 개념의 有用性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人口移動 개념을 都市와 農村의 규모와 구성비를 變化시키는 여러가지 형태의 移動을 밝히고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같은 개념 측정에 필요한 자료의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sup>14)</sup>.

人口移動 양상의 決定要因과 결과에 대한 評價는 자료가 적합치 않아서 애를 먹을때가 많다. 대개가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충분한 情報도 없다. 分析을 제대로 하려면 移主者 뿐만아니라 원래 거주지의 家口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지역의 家口에 관한 자료를 모두

필요하다면 추가 보충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資料가 적절히 分析되어야 하며 정책결정자및 計劃樹立者에게 유용한 資料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人口資料를 보다 쉽게 活用하기 위해서 人口部署는 필요할 때마다 계획 수립자에게 資料에 대한 相互作用的이며 컴퓨터 베이스화된 接近을 제공해야 한다.

統計 機構가 計劃樹立者들에게 알맞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人口部署가 發展計劃에 알맞는 유형의 정보를 표준화 해야한다.

#### 〈生産力과 死亡力〉

出産率 감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곳에서도 開發途上國의 경우 出産 水準, 傾向, 差異 등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없는 곳이 많다. 뿐만아니라 총 出産率을 결정하는 出産力 決定要因들의 相對的 重要도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다. 이 분야에 관한 知識이 充分해야 出産政策에 대한 새로운 接近을 모색하고, 정책수립자가 현 出産減少 事業을 개선케 도울수 있다<sup>13)</sup>.

國家統計機關에서 일상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가 出産傾向 決定要因에 대한 연구자료로 적합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資料의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出産 分析이 관련된 문제 연구는 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社會階層에 따른 差異死亡力에 관한 자료 생산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자주 있다. 아시아-태평양 地域 대부분의 國家의 경우 社會階層別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한다. 특별히 計劃을 樹立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 문제 인식, 資料의 출처, 문제의 규모, 조사대상 人口規模, 資料蒐集 담당 기구, 자료수집시기, 利用可能한 자료의 형태와 소재위치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社會階層別로 분류된 人口學的 資料도 政策決定者나 發展計劃樹立者에게 유용하다. 社會問題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며 각기 다른 社會階層을 대상으로 한 人口政策과 事業의 費用-效果 分析에도 이용될수 있다. 또한 이자료는 人口政策과 社會移動間의 연계성을 밝히며 社會集團들 사이의 새로운 人口學的 行爲의 傳播 形態 연구도 가능케 한다.

이런 상황에서 階層間의 심한 差異의 감소가 어떻게 出産力 및 死亡力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가 유용하다.

發展計劃은 農土를 소유하지 않은 農民, 都市貧民, 女性, 兒童, 靑少年, 老人 및 小數民族과 같은 특정 대상 集團을 目標로 하는 政策 및 事業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히 分類된 資料가 요구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地域 및 農村의 發展戰略 수립에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별 資料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發展이 특정(때로는 아주 소규모) 人口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下部集團과 地域別로 구체적인 人口資料는 필수적이다.

計劃을 담당하는 부처의 人口담당 部署는 計劃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센서스, 일반적 調査 및 기타 資料蒐集 活動을 할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人口部署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일하는 人口研究센터를 세우는 건의를 자주한다. 그러나 學界나 다른 연구기관도 그 연구결과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규모가 큰 政府 또는 非政府 단체도 고유의 업무로서 관련된 研究를 遂行한다.

## 人口學的 水準 傾向 및 推計

### 水準 및 傾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나라에서 지난 수년간 人口資料의 利用可能性 및 質面에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여러 開發國의 경우 정확한 人口學的 指數의 결여는 效果的 發展計劃樹立에 중요 장애가 되고 있다. 計劃을 樹立하는데 가장 1차적인 資料는 人口規模, 年齡別 性別 構造 그리고 都·農의 人口分散 이다. 또한 出産力, 死亡力과 移動率에 대한 정확한 推計도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해서 존스(Jones)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生命表, 移動에 의한 增加率을 포함한 年度別 人口增加率 및 成長, 結婚率, 離婚率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出産力 傾向에 관한 자료의 年度別 산정도 요구한다. (年齡構造, 결혼율, 결혼 出産力)

人口部署의 主要 活動은 앞으로 필요케 될 人口資料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일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利用 할수 있는 資料源, 資料 生産者와 使用者, 人口資料에의 접근법 등을 살펴보는 것이 포함된다. 대체로 計劃樹立者들은 現在 人口學的 水準, 傾向 및 關聯性에 대한

수집해야 한다. 그래야 家族이 勞動時間 변경, 學校入學, 토지소유및 利用 등에 의해 잠재 노동력이 있는지 여부를 정책수립가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금이나 물건이 초기에 移主者에게도 그리고 후에 다시 남은 사람들에게도 되돌아 오는 것에 대한 情報도 자료수집시에 포함시켜야 한다<sup>15)</sup>.

人口移動에 대한 관심은 都市人口 成長의 調節 努力과 관련된다. 人口가 場所의 규모 기능및 類型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分析 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규모, 기능, 類型에 따라 人口移動 자체가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할수 있게 구체적 地域別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開途國에서는 國際的 移動도 주요한 社會經濟的 結果는 낳는 人口學的 變化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 그런 나라의 計劃樹立者는 특히 보통 다른 나라보다도 이런 移動에 대해 좋고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 전국 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特別調查를 실시하여 移動의 理由, 평균 거주기간, 이동하지 않은 나머지 家族, 移動費用, 移主者의 特性 등을 알수 있다.

### 推計

計劃을 세우는데는 일차적으로 年齡·性別, 地域別 人口推計 및 特性 集團別 推計가 요구된다. 따라서 計劃樹立 부처 內 人口部署는 적절하고 연속적인 人口推計結果를 여러 부처에서 사용할수 있게 해야 하며

동시에 새 자료가 나오는데로 규칙적으로 改正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推計에 관련된 假定 및 資料도 제공해서 여러 部에서 평가를 받고 또 바람직하다면 바꿀수 있어야 한다.

각 部에서 각각 人口推計를 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각 部에서 1人씩의 代表로 委員會를 구성해서 多目的用으로 使用될 綜合的 人口推計 結果를 검토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人口部署는 기존 人口推計 기술을 살펴보고 자기 나라 사정에 가장 적합할것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地域別 人口推計도 필수적이다. 年齡 및 性別 뿐만아니라 빈곤층이나 소수집단처럼 目標로 하는 社會經濟 集團別 推計도 필요하다. 推計 設計는 새로운 資料의 利用可能性이나 새로운 要求에 부응해서 擴大시킬수 있어야 한다. 理想的으로는 模型은 컴퓨터에 적용할수 있어야 하며 여러 行政部나 研究 機關에서 널리 利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야 한다<sup>16)</sup>.

計劃樹立者가 人口, 勞動力, 入學率, 教育水準, 家族計劃事業 對象 人口를 집단별로 (年齡, 性, 教育水準 및 都市-農村別) 推計할 수 있는 散出方式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이와같은 개념들이 현재 이용 가능하다 해도 計劃樹立者들이 特定 集團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려면 좀더 細分化 시켜야 한다. 또한 人口-經濟의 相互關聯性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人口와 發展의 相互關聯性에 대한 研究

計劃樹立者가 人口와 發展의 相互關聯性에 대한 知識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人口計劃部署에서 研究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된 研究의 인벤토리 및 結果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

### 人口學的 變化의 結果

#### 〈人口成長〉

人口成長의 영향력에 관한 研究는 社會-經濟 發展 計劃樹立 過程에 있어 규칙적으로 등장한다. 또한 그것이 地域別 分野別 및 社會集團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면 더욱 더 유익할 것이다. 이 영향력 연구가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다면 政策樹立 및 政策遂行의 成功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해외 移住者의 집단적 귀국과 같은 구체적 人口學的 事件에 부응할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력 연구도 遂行되어야 한다. 또한 自然資源의 利用可能性 및 使用과 관련된 특별 長期 人口 影響력 研究도 遂行되어야 한다.

農業, 保健, 教育 및 고용과 같은 특정 分野에 미치는 人口의 影響력도 좀더 잘 측정할 필요가 있다. 人口學的 變數는 대부분의 計劃樹立 部分에 \* 중요한 影響력을 미치는데, 그러나 社會經濟的變數와 人口學的 變數와의 관계는 間接적이며 部分別 計劃樹立者가 늘 볼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計劃을 위한 研究는 다른 社會 및 經濟

分野에서의 人口 필요성을 밝혀야 한다. 가능하면 이런 연구는 部分別 計劃樹立者가 이들 영향력을 예산의미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래야 資源의 分野別 분배 결정에 유용케 쓰인다.

推計를 여러가지로 해서 人口 대상비율로 目標達成정도를 비교해보면 人口要因의 역할이 보다 명백히 나타난다. 이 研究는 또한 出產率의 감소로 나타나는 特定 分野의 利益도 측정 가능케 한다. 또 人口를 分野別 計劃樹立에 效果的으로 統合시키는데 관련 부처의 관리자들이 보다 많은 흥미를 느끼게 한다.

教育의 경우 각기 다른 人口學的 假定 下에서 進學率을 높히는데 드는 추가 費用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하며, 勞動力의 教育構造, 年齡 및 性別의 變化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뒤에 고용구조와 必要 人力 推計와 관련이 있다.

人口와 發展 分野에서 計劃樹立者를 도울수 있는 研究 中에서는 人口 成長과 分布가 農產物 生産, 食品需要, 토지소유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우선순위가 있다. 또한 農村 家族이 農工에 대한 人口 압박에 어떻게 反應하는가도 연구되어야 한다. 年中 勞動 時間및 個月數, 各 家庭 所得과 生産, 경작토지, 토지경작의 기술변화등도 살펴야 하며 또한 農業構造와 技術이 人口學的 水準및 傾向에 미치는 피드백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人口成長이 각기 다른 社會集團의 이해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評價도 중요하다. 現在 가난을 없애고 소득격차를 줄이려

는 目標의 강조는 각기 다른 發展戰略 상황에 따라 人口成長이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研究의 必要性을 새삼 강화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最近까지 人口變化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를 평가한것은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出産力 감소에 따른 成長率의 감소가 所得分配의 行평에 기여한다고 가정하지만 最近 研究가 여기에 의문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부분적이지만 여러 地域에서 所得水準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出産力이 가장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社會階層, 農村-都市, 地域및 직종에 따라 얻는바와 잃는바의 규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결과는 計劃樹立者에게 어디에 出産政策 遂行을 위한 努力을 가장 많이 들여야 하는가를 가르켜 줄것이다. 反對로 이런 연구는 또 特定한 集團의 現 出産政策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상해 주는 社會經濟 政策 必要性도 일깨워 준다.

人力 計劃樹立은 國家 經濟發展事業과 人力政策이 人口學的 傾向과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産業과 직업에 의한 不均衡의 유형에 대한 分析이 요구된다. 나가서 이 研究는 고용과 所得分配의 관련성도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研究事業중 人口學的 要因이 勞動力의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필수적이다. 특히 노동력 공급 研究는 自然增加과 人口移動이 잠재 노동력, 기술수준, 노동참여율및 임금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도 알아봐야 한다.

여러 開發途上國에서 人口要因을 計劃樹立者가 관심을 가져야할 여러

가지 주요 환경문제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人口成長과 주거 안정양상에 따른 토양오염과 같은 農村 환경문제도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 계층의 都市移住에 따른 환경문제도 중요하다. 이같은 연구의 요소로는 여러가지 유형의 人口推計와 消費패턴, 이 요구를 充足시키는데 필요한 生産, 分析, 人口水準을 物理的 자원의 요구정도로의 환원, 그리고 끝으로 환경제약 요인 분석이 포함될 것이다.

#### 〈死亡力〉

人口成長이 發展에 미치는 効果는 높은 人口成長率이 死亡力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出産力 增加 때문인지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이 年齡構造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死亡力 감소는 일반적으로 保健水準의 向上을 의미하는데 이는 勞動 生産力の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死亡力 감소 効果 研究는 勞動 生産力 증가로 얻는 經濟的 이익의 평가와 연결시켜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보다 긴 生産的인 삶에 대한 기대가 人間資源에의 투자증가의 인센티브로 어느 정도 作用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에 높은 生産효과가 연구로 증명된다면 保健計劃및 政策樹立에 상당한 効果를 갖게된다.

존스는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 地域國家에서 死亡力 감소가 家族構造와 經濟行爲에 미치는 効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연구는 사망력 감소가 年齡構造나 전 生活週期의 家族構造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分析하고 나가서 상속양상, 저축양상, 그리고 잠재적 移住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한다.

#### 〈人口移動〉

人口分散과 移動은 특히 都市人口成長, 農村소모, 환경훼손, 年齡分布의 變化, 고용, 人力開發에 주요 部門間 영향을 지닌다. 移動은 出產力에 직접적으로도 作用한다.

國內移動이 開發에 미치는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 경향 및 전망은 出產力이나 死亡力 보다 計劃樹立者들의 단기 및 중기적 관심과 보다 밀접하다. 또한 個別 移住者가 느끼는 費用-效果의 균형은 社會 전체의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政策分析에도 移動은 관계가 깊다.

人口移動 관련 연구는 移動이 前居住地 및 移動 地域의 人口成長과 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야 한다. 공공부분과 移住者 자체 및 다른 人口集團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힐 때는 노력에서 移動의 주요 近似 效果에 보다 큰 주의를 두어야 한다. 前 거주지 및 移住地 人口에도 염두를 두어야 한다.

고려되어야 할 要因으로는 필요한 공공서비스 범위, 전체 경제, 과밀과 오염에 대한 費用, 教育과 保健事業의 效率性, 住宅에 대한 자료 등이다.

특정 몇몇 都市의 成長을 평가하는데 費用-效果 연구도 유용하다. 이런 연구는 경제 및 비경제적 費用-效果도 고려해야 한다. 빠른 成長率에 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成長의 크기 뿐만 아니라 都市地域의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영구 이주의 費用 및 效果를 또한 이동 및 이동의 費用-效果와 相對比較하는 研究은 計劃樹立者에게 都市化문제와 農村開發을 다를 방법으로 어떤 형태의 移動을 격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적절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都市에서 農村으로의 移動이다. 이들 이동이 도시에서 다시 농촌으로 성공 또는 실패해서 되돌아가는 것인지와 이것이 農村地域의 社會變化와 近代化에 의미있는 자극을 주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특히 都市로의 移住者가 都市에서 채택한 出産行態가 원래 農村에서도 채택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유용하다.

여러 開發國에서 국제적 移動과 開發과의 관련의미는 연구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특히 이런 연구는 國際移動의 費用을 특정한 숙련노동자나 전문가의 부족, 이같은 부족이 미래의 직업훈련 및 高等教育에 대한 의미, 外國에서 送金이 갖는 經濟的 의미 등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런 형태의 연구는 計劃樹立者가 國際的 移動이 移動者 자신뿐만 아니라 社會 전체에 있어 費用을 줄이고 利益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國內 및 國際的 送金은 食量, 住宅 및 農村투자에 기여하며 그과정에서 所得分配에 변화를 준다. 그러나 그동안 送金의 역할을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런 연구는 앞으로의 送金이 開發過程에 기여하는바를 밝혀 이를 計劃樹立에 活用하면 유용할 것이다.

### 人口學的 變化的 決定要因

開發計劃에 人口要因을 統合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는 研究가 人口傾向과 그 社會經濟的 決定要因간의 충분한 量的 관련성을 개발치 못했다는 점이다. 주요 開發過程이 人口學的 傾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놀랄 정도로 적다<sup>21)</sup>.

#### 〈生産力〉

붕가트가 개발한 모형은 주요 生産力 決定要因의 強度와 傾向을 파악하고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는데 使用 될 수 있다. 各國 상황에 따라서 人工妊娠中絶 정도, 수유기간, 性交回數 등에 대한 研究도 政策樹立者에게 유용할 것이다<sup>23)</sup>.

결혼과 生産水準은 강한 相關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연령과 그와 관련된 독신생활, 이혼, 사별, 재혼 등 현상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보다 많은 研究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地域 여러나라에서는 結婚力 및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능한 方法은 人口 관련 社會科學 研究에서 가장 소홀이 다루어지는 분야이다. 이같은

연구의 重點은 結婚年齡 樣相, 傳統的 結婚양상에 대한 支持, 變化에 작용하는 要因 등을 결정하는 社會的 要因에 두어야 한다. 또 父母에 의한 중매결혼이 연애결혼보다 더 安定된 관계를 가져오는지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結婚연령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開發의 측면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존스(Jones)는 政策과 관련된 것으로서 結婚力에 관한 몇몇 연구 분야를 제시한바있다<sup>24)</sup>. 여기에는 移動의 效果, 과부및 신부 값 조정, 他種族과의 結婚, 증가된 女性의 所得이 結婚力에 미치는 영향등이 포함된다. 그는 또한 結婚年齡과 結婚하는 女性의 比率과의 相關性에 대한 研究도 추천한다.

子女의 費用-效果의 측정도 計劃樹立者에게는 家族規模 선호에 대한 統察力을 갖게 해 준다. 이 費用-效果 추정에 필요한 情報를 포함한 資料 수집의 독려도 필요하다. 선호태도는 부모에게 子女와 家族이 바라는 다른 것들 간의 교환에 대해 질문하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부부의 希望 家族規模 측정에 보다 많은 努力을 들어야겠다는 점이다.

父母의 子女價値에 대한 認識 연구에 추가해서 地域社會 研究에 기초해서 子女의 실제 費用과 經濟的 效果를 알아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중 가장 우선은 子女의 勞動力과 所得, 부모에 대한 子女의 직접및 機會 費用, 子女에의 투자에 대한 댓가,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한 보험과 노후의 安定으로서의 子女의 장기적 이익을

파악할수있는 子女의 經濟的 役割, 勞動活動과 學業 참여간의 관련성, 그리고 반대로 子女教育이 農村으로 부터의 移住와 農村으로의 送金에 미치는 영향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研究는 子女가 十代에 勞動에 기여하는바를 측정한다. 또한 出産力을 떨어뜨리기 위해 子女勞動을 없앴으로서 얻는 福祉 측면의 이득을 子女所得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福祉 측면의 손해와 어떻게 比較할 수 있는가도 나타낸다.

子女에 대한 평가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의 형태로서의 역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家庭에 닥칠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밝히고 이런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를 알아보고 나가서 家族에게 닥칠 재앙이 영향을 미치는 子女의 역할을 밝혀야 한다. 大家族에 대한 動機로서 老後保障의 양적 重要性을 밝히려는 연구에서는 정부대책이나 자녀에 의존의 對策으로서의 개인적 저축이나 부동산의 축적을 통한 노후보장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

老後를 위해 子女를 원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설계는 질문의 두가지 측면이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로 子女가 실제로 社會的 安全의 기능을 갖는다는 증거가 있는가? 와 둘째로 社會的 安全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의 기대가 무엇이며 이 기대가 都市-農村의 人口移動과 勞動參與 양상 變化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sup>25)</sup> 하는 점이다.

여러나라에서 出産力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政策은 少家族의 生活水準이 더 높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연구결과가 이런 가정을 뒷받침

또는 거부하고 있는 만큼 家族規模를 제한하기 위한 家族計劃事業과 기타 政策은 보다 현실적인 目標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들 家庭內的 所得과 서비스 흐름에 관한 연구도 出産行爲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새로운 접근법을 시사한다.

出産力과 女性の 勞動參與 사이의 연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머니와 근로자 역할간의 相反性, 고용으로 인한 女性の 心理的 經濟的 獨立性, 그리고 女性 고용이 家族計劃에 대한 선택을 포함해서 바깥 世界에의 노출 증가 등을 고려케 한다. 이런 점 이외에도 計劃 樹立者는 特定 산업부분에 女性生産活動과 人口의 地域的 분산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야 한다. 이런 연구는 女性の 경제적 지위 향상및 이로 인한 出産力 감소에 영향을 줄 경제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유용하다.

비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에서 教育과 出産力이 逆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女性 教育과 出産力 水準을 연결시킨 연구는 많으므로 앞으로는 이 效果가 教育內容 때문인지 아니면 같은 年齡 少女와 婦人을 모아 놓는다는 점과 같은 다른 要因 때문인지를 알아 봐야할 것이다. 모든 原因要因과 매개변인을 포함해서 教育이 出産力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알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빌스 모로우 (Bilsborrow)는 5가지 假定을 제시하였다. 즉 女性の 教育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① 結婚年齡을 늦추고 ② 집밖에서 일할 기회를 증대시키고 ③ 家庭計劃에 관한 情報를 충분히 주며 ④ 嬰幼兒 死亡率

을 낮추고 ⑤ 자녀 양육에 시간을 보내는 여성의 취향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都市化, 家族計劃서비스의 利用可能性, 交通 및 通信 施設의 質과 같은 상황 要因이 어떻게 女性教育과 出産力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sup>27)</sup>

대체로 出産力を 평균 結婚年齡과 逆相關性을 보이며 結婚年齡의 증가는 女性教育 및 고용 개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効果的인 人口政策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과관계를 보다 명백하게 규명할 연구가 필요하다.

농촌에서 都市로의 移動이 出産力에 지닌 의미는 그동안 잘 인식되어 왔으나 적절한 資料의 수집(데이터 베이스) 부족으로 計劃樹立者가 이용할만한 명백한 연구결과는 없다. 스톨리츠 (Stolnitz)는 적절한 데이터 베이스에는 ① 地域規模와 社會經濟的 特性別 前居住地와 移動地 ② 出産 관련 特性和 더불어 出生地, 前 및 現居住地, ③ 移住 前과 後의 임신을 구별하며, 현재와 누적적 出産力을 구별하며, 移動과 관련된 장기 効果와 일시적 效果를 구별할수 있는 年度別 상세한 出産歷 ④ 전체의 現居住地에서의 거주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전 자료가 있어야 추정된 移住者와 非移住者의 差異出産力을 전국, 都市 및 農村에의 영향력으로 바꿀수가 있다<sup>28)</sup>.

農村地域에서 出産力 감소란 변화의 역할은 여러나라에서 지적된바 있다. 農村 발전양상이 出産力에 미치는 效果 연구는 計劃樹立에 유용

할 것이다. 그러나 出産力의 効果는 勞動力 需要, 土地利用可能性, 所得水準 및 分配의 變化를 통해서 活用한다. 존스(Jones)는 문제를 다루는 한 방법으로 이 연구를 大規模 農村變化와 ダイナ믹 연구 속에 집어 넣는 것이라고 한다.<sup>29)</sup>

#### 〈死亡力〉

保健과 死亡力을 연구하려면 家庭의 經濟 상황, 地域社會變數와 死亡力 間의 關係 分析을 위한 적절한 分析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연구는 질병감염에 영향을 주는 공공보건사업과 같은 地域 또는 地域社會 水準 要因의 相對的 영향력을 밝혀내야 한다. 뿐만아니라 社會經濟, 生醫學 및 環境 要因과 死亡力과의 關係에 관한 보다 나은 개념모형의 개발도 이 분야의 자료수집에 보다 개선된 指針을 들수 있을 것이다.<sup>30)</sup>

이 개념들은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뿐만아니라 생물학적 요인도 포함해야 된다. 왜냐하면 死亡力 양상을 나타내려면 後者が 前者를 통해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개념적 模型에 母性 要因, 음식물 섭취, 環境오염, 사고, 個人的 疾病통제 요인 등을 통해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어야 한다.

死亡力 추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공공보건사업과 비교해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相對的 重要性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嬰幼兒 死亡力 水準 결정 요인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教育이 중요하

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많다. 그러나 政策 및 事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과관계의 메카니즘 결정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같은 研究는 어느정도의 教育으로 어머니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정보에의 접근, 또는 子女 保健에 대한 선호 등을 제공할수 있는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아동 보호기관, 질병상태에서 처리 양상및 음식에 대한 준비및 공유와 같은 家口水準要因을 살펴봄으로서 파악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社會階層에 따른 死亡力의 큰 差異는 아시아-태평양 地域計劃樹立者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관련해서 保健施設에의 접근의 差異, 또는 知識과 영향의 차이와 같은 메카니즘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 發展政策이 社會階層에 따른 死亡力 差異를 넓히는지 또는 좁히는지를 평가하는 研究도 있어야 한다.

地域이나 行政區域別 差異死亡力에 대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연구도 필요하다. 計劃과 政策決定에 대한 價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差異를 家口調査와 地域社會 資料를 결합 使用해서 파악될수 있을 것이다.

스톨리츠(Stolnitz)는 死亡力 水準을 낮추는데 있어 保健 中心的 事業이 어떻게 社會經濟的 發展을 대신하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sup>32)</sup> 그는 回歸(Regression) 模型을 사용해서 특정 死亡力 水準을 낮는데 保健 事業없이 社會經濟 發展事業 또는 그 반대가

실패하게 되는 분기점이 어디인가를 밝힐수 있는 연구도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스 (Jones)는 死亡力 水準을 낮추는데 있어 공중보건사업, 일반 생활환경과 영양간의 相關關係를 평가할수 있는 두가지 接近法을 제시 하였다. 하나는 특정 保健事業의 效果를 재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이환과 死亡 조건을 계속 관찰하는 것이다. 後者의 좋은 例로서는 방글라데시 말타브 우과질라의 국제 설사 질환 연구센터의 사업을 들 수 있다.

많은 研究가 子女 질병을 수유감소와 연결시키고 있다. 生物學的 및 사회경제적 要因을 결합하여 수유를 증진시킬수 있는 정책 개발 측면에서 수유 결정요인을 밝히는 일도 매우 유용하다. 또한 여러 保健醫療와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영아 수유가 死亡力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人口移動〉

아시아-태평양 地域에서 研究事業 중 國內移動의 우선순위는 높아야 할 것이다. 높은 農村人口比率과 점차 늘어나는 農村人口는 都市로의 移動者가 逆으로 移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人口移動은 出産力과 같은 다른 人口學的 要因보다는 정부정책을 통해 보다 쉽게 다룰수 있다.(때로는 다른 영역에서의 政策이 직접 移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보다 더 큰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고 하지만)

國內 人口移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도 移動의 흐름을 바꾸는데 効果的인 政策 찾기에 有用할 것이다. 農村-都市 人口移動 決定要因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農村에 教育和 保健醫療施設이 充分치 不<sup>1</sup>함으로 인한 점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農村 젊은이들의 都市로의 탈출에 教育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연구되어야 한다. 보다 폭넓게는 모든 정부예산이 都市와 農村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고 이것이 移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分析이다.

人口移動의 決定要因이 밝혀진다면 移動 前 居住地와 後 居住地의 特性에 대해 보다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人口가 빠져 나가는 地域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移動動機를 밝히고 실제 移動 형태를 아는 데는 마을 단위의 미시적 연구가 유용하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地域에서 家族構造와 결혼양상이 移動에 미치는 效果研究가 좋다.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決定要因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는데는 그 의도가 移動과 무관치 않은 發展政策의 역할 파악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政策은 農業 物價政策, 환율고정, 보호관세 및 조세 정책이 포함된다.

## 人口政策研究

政策分析은 이것이 다양한 原則을 포함하며 연구의 生産者와 使用者

간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고 결과의 시의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研究와는 다르다. 이것은 政策의 目的뿐만 아니라 도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政策과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에 政府가 人口目標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비록 정책 제안이 둘 또는 그 이상의 要因間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정책제안에 있어서는 이런 관계에서 한걸음 더나가 의도하는 결과를 위한 구체적 事業의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이 事業은 행정·관리의 용이성과 費用 측면에서 分析되어야 한다.

파로크와 시몬스(Farooq and Simmons)는 政策 관련 연구를 위해서 4가지 指針을 제시하였다. 첫째, 人口가 政策이 의미를 갖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강력하게 政策的 結論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도의 경험적인 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셋째, 연구 모형이 政策的 要因과 구체적 정부의 인센티브와를 연결시켜야 한다. 넷째 分析을 통해 제시되는 프로그램의 事業은 分明히 實行 可能해야 한다.

人口 관련 政策研究를 遂行하는데는 費用-效果의 比重, 정책이 받아들여진 가능성에 대한 결정, 그리고 바람직한 人口學的 效果를 갖기에 요구되는 時間과 같은 측면들에 주의를 두어야 한다.

인센티브 제도, 人口教育事業, 그리고 女性の 고용을 증대키 위한 노력과 같은 여러 人口活動의 費用-效果 研究는 計劃樹立者가 資源을

한 活動에서 다른 活動으로 有用하게 변경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이런 事業은 부가적으로 사회경제적 이득을 낳기 때문에 一般 計劃樹立 過程에 結合된 一部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提案된 政策들의 시행 可能性을 평가하는데 研究戰略 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를 두어야 한다. a) 필요한 政治的 合意를 얻을수 있는가? b) 合意가 있다면 여기에 우선권을 줄 政治的 意志가 있는가? c) 공공 자원이 적절하며 또한 기대되는 댓가가 그 자원의 使用을 정당화할수 있는가? d) 정책을 수행하는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가 e) 정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와 行政的 기술은 충분한가? 이다. 人口政策의 시작시기와 그 결과가 나타나기 까지의 時間的 격차를 평가한 후에 이 시간적 變化를 찾아내는데 研究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머튼스(Mertens)는 政策研究에 대한 4가지 다른 오리엔테이션을 기술하였다.<sup>36)</sup> 構造的 接近은 기본적 政治, 社會및 經濟的 構造的 조사를 뜻한다. 이런 研究는 人口政策의 成功을 위한 구조적 變化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政策研究에서 人口學的 變化 接近은 주요 人口學的 變化가 일어나는 地域의 양상比率에 초점을 두고 人口學的및 社會經濟的 說明 要因을 活用한다. 經濟發展 接近法은 경제발전 속도가 다른 두 地域을 比較하여 이것이 人口學的 要因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政治 制度 接近法은 人口政策이 어떻게 기본적 이데올로기 문제와 사회조직에 연결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政策研究의 目的은 人口政策과 事業이 서로 다른 政治制度를 가진 나라에서 施行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 人口學的 要因의 變化 政策

政策研究의 주요 임무는 人口 요인에 영향을 주는 政府및 私設團體의 活動을 조직적으로 살펴보는 일이다. 또한 人口 要因이 소홀이 다뤄지고 있는 분야를 찾아냈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人口要因을 다루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政府 政策, 計劃및 事業에 대한 分析도 있어야 한다.

#### 〈出産歷과 死亡力〉

스톨니츠 (Stolnitz)는 社會, 經濟, 政治및 文化的 構造에 따라 어떻게 出産 관련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연구도 요구하였다.<sup>37)</sup> 그는 政策 目標은 각기 다른 社會集團이 직면하고 있는 出産 인센티브를 자세히 分析하고 또 이런 구조가 變化에 어느 정도 적응할 여지가 있는지를 分析함으로써 잘 遂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구조가 단지 人口學的 理由만으로는 쉽게 변치 않으리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出産 인센티브구조를 이해함으로써 人口學的 바탕에서의 事業遂行 가능성을 밝혀낼수 있을 것이다.

시몬스(Simmons)는 人口成長을 늦추고자 하는 國家에서는 우선순위가 出産力과 嬰兒 死亡力 間의 相關關係 연구와 영아 死亡者 數를 줄이는 事業戰略 遂行時 해결해야 할 문제 연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8)</sup>

만약에 嬰幼兒 死亡力の 감소가 出産力 감소에의 주요 요인이라면 死亡力과 出産力을 모두 줄일수 있는 保健및 營養 관련 特別事業을 구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같은 事業에 관한 연구는 死亡力 감소의 기술, 이런 기술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관련 費用까지 다뤄야 한다. 嬰兒 死亡力の 감소가 장기적으로 出産力을 낮춘다고 하지만 目標로 설정한 死亡力및 出産力 水準의 達成을 위하여 母子保健 事業에 투자할 財源이 어느정도 드는가를 計劃樹立者가 알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도 필수적이다.

人口와 發展計劃을 統合하는데 있어서 研究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바는 社會經濟 계층간의 保健水準을 줄이기 위함 保健政策의 費用-效果와 死亡力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社會的 要因이 1次 保健醫療制度의 效率性, 특히 社會的 要因이 保健서비스 模型과 이들서비스의 費用과 效果의 分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시된 保健政策에 관한 연구수행의 준비에는 과거 保健政策 經驗상 死亡力の 영향력 평가가 좋다. 특히 이들 保健事業의 評價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次 保健醫療에 대한 努力과 특별히 死亡力이

높은 질병을 치료·예방할 목적으로 遂行되는 事業과의 균형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밝혀준다.

保健制度는 또한 出産力 감소, 특히 家族計劃 서비스 및 對象 婦人에 대한 상담에서 또다른 役割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傳統的 制度가 어떻게 하면 母性死亡力을 줄이는데 보다 效果的인 役割을 담당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人口移動〉

人口移動 政策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일은 實施 중인 移動政策을 기술 평가할 인벤토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 인벤토리가 이들 政策이 人口分布를 바꾸는데 얼마나 成功的이었는가 뿐만아니라 社會福祉에 미친 영향까지도 評價할수 있다면 매우 有用할 것이다.

政策研究와 관련된 주요 傾向은 어떤 政策이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느냐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都市와 農村 地域間에 公共 財源의 分配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을 살펴봐야한다. 또한 특히 都市-農村의 平等, 地域 投資政策 그리고 農村 發展政策과 관련된 所得分配 政策이 국제 이동이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어야 한다.

국제이동으로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가 빠져 나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나라에서는 다시 本國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하는 조치도 알아봐

야 한다.

이런 연구는 이들 정책의 구상, 실행 가능성 및 관련 부문에의 영향 등으로 밝혀야 한다.

### 戰略과 計劃의 分析

一般的 發展戰略이 人口學的 水準과 傾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같은 分析의 列가 農業發展의 資本 집약적 戰略이 人口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연구로 정책의 國家的 次元과 個人的 水準에서의 결과의 차이를 밝혀준다.

여러가지 人口推計의 기대 결과를 밝혀내는 여러가지 人口戰略의 장기적인 經濟 및 人口學的 結果 分析에는 시뮬레이션 接近法이 유용하다. 그 반대로는 국가 장기 發展戰略의 人口效果分析이 될 것이다.

行政 부처와 연결된 人口計劃樹立 부서는 人口目標 達成에 行政 부처의 참여를 높여간다는 관점에서 人口내용에 대한 分析을 시도해야 한다. 여기에는 計劃樹立에 사용된 人口學的 資料, 인식된 人口문제 및 제시된 人口政策에 대한 分析을 포함해야 한다. 發展計劃을 모니터하는데는 다음의 두가지 연구문제를 들 수 있다. 하나는 發展을 위한 事業이 人口學的 要因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發展事業을 어떻게 구상해야 바람직하게 人口要因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 事業에 대한 研究

맥그리비와 버드셀(McGreevy & Birdsall)은 人口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戰略에 유용한 發展 事業들을 제기한바 있다.<sup>39)</sup> 이 내역에는 農村發展, 地域社會 中心의 開發事業, 教育施設의 擴充, 保健事業, 위생 및 관련 공공 事業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시몬스 (Simmons)는 사회 복지제도에 관련된 事業과 食糧 공급관련 事業을 여기에 추가하였다.<sup>40)</sup>

### 〈家族計劃 事業〉

家族計劃事業 評價에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연구문제로는 ① 잘 구상된 事業에 의해 達成할 수 있는 出産力 감소 수준 측정, ② 현재 진행 중인 家族計劃 事業의 費用-效果 分析, ③ 家族計劃보다 出産力 감소의 費用-效果性이 더 높은 다른 對策에 대한 모색 이다.

공식적 통계에 대한 分析이나 수용자 인식 조사등에 추가해서 家族計劃事業 研究는 特定 地域의 避妊 서비스와 공급의 質, 利用可能性 및 接近性을 평가하고 이런 서비스와 공급에 대해 수용자가 어떻게 인식하는바도 측정해야 한다. 家族計劃 보급과 관련된 연구는 또한 要員의 活動樣相과 같은 행정관리 측면도 포함해야 하며,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연구는 또 어떤 특정한 사회 조건에서 요원을 잘 구성, 잘 관리케 하는가도 조사되어야 한다.

人口計劃部署는 費用-效果 分析 고유의 方法論的 문제 때문에 이

연구를 제한해야할 필요성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人口 관련 事業이 費用-效果가 보다 쉽게 계산되는 다른 事業이나 計劃과 財源 확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費用-效果 分析에 重點을 두게 된다.

家族計劃 서비스 제공이 실제 및 希望子女規模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정도 필요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出産力에 대한 家族計劃과 社會經濟發展의 相對的 영향력을 밝히려는 努力이 포함되어야 한다. 家族計劃事業이 出産力에 미치는 效果 評價 이외에 부부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많이 줌으로서 사회변화에 가져올 效果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 〈發展事業〉

아시아-태평양 地域에서 실시한 많은 연구를 보면 수력발전댐, 관개 시설, 농촌전기사업과 같은 발전事業은 人口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人口部署는 人口學的 傾向에 영향을 주는 관련 事業의 인벤토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計劃에 포함된 發展事業의 人口學的 次元의 감시가 그 기능의 하나로서 들어가야 한다. 과거 人口 측면에 의미있는 效果를 가져왔던 사업의 分析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分析은 人口學的 側面에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사업의 發展 目的이 어떻게 달성될수 있는가를 알수 있게 한다. 政策立案者와 計劃樹立者 들이 제안될 發展事業 구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들 연구는

특정 人口集團의 복지뿐만아니라 人口學的 變化에 대한 의미도 평가해 봐야 한다.

發展事業이 人口에 미치는 영향 分析에는 복잡한 方法論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들 평가를 위한 고무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統合 計劃樹立에 주요한 統察을 제공한다.<sup>41)</sup> 이들 연구는 財源 分配 결정에 기초로 活用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量的 性格을 띠어야 한다.

地域社會 단위에서의 發展事業이 人口目標 達成에 어떻게 效果的으로 使用될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한다. 이런 연구는 人口目標와 전반적인 發展없이 事業의 進전을 통해서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女性의 문자해독과 수입증대사업이 結婚年齡과 避妊使用 같은 出産力 媒介要因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존스(Jones)는 이런 분야의 연구가 人間的 측면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직업을 찾는 女性의 삶을 추적하는데는 家族구성및 出産力과 관련된 태도, 실천 뿐만아니라 전통적 社會구조의 붕괴정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의 정도 같은 요인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人口學的 영향력과 文化·社會및 家庭生活에 대한 영향력의 교환을 밝혀 볼수 있다.

## 優先順位 決定

人口를 發展計劃에 統合시키는데 요구되는 研究의 우선 순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어떤 나라에서는 死亡力과 人口分散이 제일 중요한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出産力과 人口成長에 당연히 우선권이 주어진다.

統合된 人口·發展計劃을 支援하기 위한 研究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要因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人口와 發展에 대한 國家의 目標, 둘째 利用可能한 資料, 셋째 적절한 개념적 模型과 研究方法의 利用可能性, 넷째, 研究結果의 活用的 측면 다섯째, 기술적 전문가의 活用性 이다. 우선순위는 研究의 적절한 時間 개념 속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어떤 것은 중·장기 연구 이전에 즉각적으로 단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Footnotes

1. Third Asian and Pacific Population Conference, 1982 "Asia and Pacific Call for Act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pulation Headlines: Special Supplement*.
2. Ghazi M. Farooq, "Population,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planning: towards an integrated approach," *International Labour Review*, May-June 1981, pp. 337, 339.
3. George B. Simmons, *A Population Policy Programme for Egypt: A Proposal*, 1983, p. 49. (see also Ghazi M. Farooq and George B. Simmons, "Towards a policy relevant framework for the study of fertility" in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An Economic Perspective on Research on Policy Issues*, 1984, p. 119.)
4. Farooq, *op.cit.*, p. 344.
5. George B. Simmons, *The Analysis of Policy Options in the Population Sector - A Study of the Current Egyptian Capability: Report of the UNFPA Consultants' Mission*, 1981, p. 24.
6. Walter Mertens, *Research Priorities for Popul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Recommendations for UNFPA Inter-Country Programmes*, 1978, p. 36.
7. Gavin Jones, Review of the Integration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s in Asia, *Development Studies Centre Occasional Paper, No. 30*.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 41.
8.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Report of the Informal Interagency Expert Meeting on Methodologies for Integrated Population and Development*

- Planning*, 1984, pp. 29, 30.
9. Mertens. *op.cit.*, p. 62.
  10. Lin Lean Lim, "Integration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 the ESCAP Region."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Frameworks for Research and Planning: Report of the Workshop on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Planning*, 16-20 February 1987, Bangkok, p. 128.
  11. Carmen A. Miro and Joseph S. Potter. *Population Policy: Research Perspectives in the Developing World*, 1980, p. 115.
  12. *Ibid.*, p. 83.
  13. Sidney Goldstein. "Research priorities and data needs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population redistribution prioriti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Policies in Development Planning*, 1981, p. 188.
  14. *Ibid.*, p. 189.
  15. Richard E. Bilsborrow, "Priority areas for future research on demographic-economic interrelationships,"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Modelling*, 1981, p. 79.
  16.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op.cit.*, pp. 26 and 30.
  17. *Ibid.*, p. 26.
  18. Gavin Jones, *Social Science Research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South-East and East Asia: A Review and Search for Directors*, International Review Group of Social Science Research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Mexico City, December 1978, p. 61.
  19. George Stolnitz, "Three to five main challenges to demographic research," in *Demography*, November 1983, vol. 20, No. 4, p. 423.
  20. Goldstein, *op.cit.*, pp. 190, 191.
  21. Stolnitz *op.cit.*, pp. 417, 418.
  22. John Bongaarts,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roximat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 No. 1, March 1978, pp. 105-132.
  23. Population Council,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a note on priorities,"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81, vol. 7, No. 2, p. 319.
  24. Gavin Jones, *Social Science*, *op.cit.*, pp. 23 and 24.
  25. Mertens, *op.cit.*, p. 66.
  26. Gavin Jones, *Social Science*, *op.cit.*, p. 34.
  27. Bilsborrow, *op.cit.*, pp. 76, 77.
  28. Stolnitz, *op.cit.*, pp. 426, 427.
  29. Gavin Jones, *Social Science*, *op.cit.*, p. 42.
  30. Lado T. Ruzika, "Mortality transition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Issues for Research," in *IUSSP Newsletter*, 1983, p.72.
  31. *Ibid.*, p. 74.
  32. Stolnitz, *op.cit.*, p. 420.
  33. Gavin Jones, *Social Science*, *op.cit.*, p. 59.
  34. Miro and Potter, *op.cit.*, pp. 84, 85.
  35. Farooq and Simmons, *op.cit.*, p. 117.
  36. Mertens *op.cit.*, pp. 51-53.
  37. Stolnitz, *op.cit.*, p. 318.
  38. Simmons, 1983, *op.cit.*, p. 74.
  39. William P. McGreevey and Nancy Birdsall, *The Policy Relevance of Recent Social Research on Fertility*, 1974, p. 75.
  40. Farooq and Simmons, *op.cit.*, p. 121.
  41. These proposed methods are discussed in *Assessing the Demographic Consequences of Major Development Projects*, United Nations, New York, 1988.
  42. Gavin Jones, *Social Science*, *op.cit.*, p. 43.

